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못다 한 일 잘 매듭짓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2월 23일 (토) 제 166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트럼프벤젤리칼스” 탑뉴스 선정

미국종교기자협의회 ‘2017년 10대 종교 뉴스 결과 발표

2년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우익 보수 복음주의 지지자들이 미국 종교기자협의회(RNS) 선정 '2017년 10대 종교 뉴스 중 1위를 차지했다.

소위 “트럼프벤젤리칼스(Trumpvangelical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2017년은 백악관에 보수적 크리스천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필두로 비공식적인 대통령 종교자문위원회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 복음주의 리더들의 영향력이 미국 정치 판도를 이끈 한 해였다.

특히 행정부 내각 구성에서부터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명,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그리고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적 자금 지원 중단 등등에 있어, 백인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입김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진 한해였다는 것이, 종교 관련 기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프란시스 교황과 50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 그리고 앨라배마 상원 후보로 나선 로이 무어를 여유 있게 제치고, 2017년 종교 관련 뉴스메이커 1위로 선정됐다(Evangelical support, stronghold in Trump administration voted No. 1 religion story of 2017; President Donald Trump selected as top newsmaker).



1. “트럼프벤젤리칼스” 미국 정치 판도에 강력한 영향력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롯, 비공식 대통령 종교자문위원회 소속 보수 복음주의 리더들의 막후 영향력 행사로 “트럼프벤젤리칼스” 신조어가 탄생했다.

그리고 여론 조사가 따르면 트럼프는 여전히 백인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2. 버지니아 살롯츠빌 백인 우월주의자들 행진, 인종주의로 치우쳐 1명 사망에 여러 명 부상

2017년 5월, 살롯츠빌에서 남북전쟁 시기 남군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E. 리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자 리처드 스펜서가 이끄는 대안 우파/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이 횃불을 들고 시위를 했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쏠탄을 들고 시위했다. 이후 6월 8일에는 KKK단이 시위를 했고, 7월 8일에 다시 한번 KKK단이 시위를 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위대와 대치한 뒤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고조됐고 결국 8월 11일 우파 결집을 외치며 네오나치, KKK, 백인우월주의자, 민병대 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대치하며 충돌하고 말았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여행금지 명령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즘”을 근절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8개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 명령으로, 무슬림들의 반미정서 확대와 동시에 반 무슬림 정서가 확산됐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파장

미국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리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거룩한 경배와 찬양으로 몰려쳐야 하는 예루살렘이, 현재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암울한 시간을 맞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미국내 보수 세력들은 지지하지만 중동에서는 범 아

랍권의 총궐기 사태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5. 미얀마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대피

불교도들이 대다수인 미얀마는 ‘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군부와 과격 불교도 민병대들의 잔악한 만행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들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치의 신화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로힝야족 박해 사태를 옹호하며, 군부의 손아귀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면으로 계속>

일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

처치리더스.컴, 라이프웨이 대표 톰 레이너 목사의 사역 많은 교회의 위험성 경고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 많은 교회는 나름대로 너무 바쁘다. 한마디로, 성도를 지치게 하는 활동, 프로그램, 행사, 예배가 너무나 많다.

여기서 무슨이 생각이든다. 이런 교회의 활동 대부분은 그 성도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이유로 시작을 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결속을 도모할 시간이 없다. 바쁜 교회, 활동 중심의 교회, 일이 많은 교회는 무능한(ineffective) 교회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궁지에 빠지게 됐을까? 이유가 많지만 7가지로 살펴보겠다 (The Overcommitted Church).

1. 활동과 가치를 똑같이 본다. 그래서 바쁜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바쁘고, 지치고, 일이 많아 절절대는 교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2. 프로그램과 목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다. 최근 한 목회자에게 220명에서 23명으로 참여자가 줄은 교회 프
3. 교회 목회자가 중단의 두려움을 가
4. 교회 목회자가 “못해요”라고 말하
5. 교회 목회자가 중단의 두려움을 가

활동과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 바쁜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로 생각 프로그램과 목회가 수단 아닌 목적... 프로그램 중단에 두려움 가져

로그를 왜 계속하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의 유산이다”라고 말했다. 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규정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교회가 뚜렷한 목적이 없다. 최상의 교회조차도 험경계 해야만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다. 한 교회가 특별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프로그램이나 목회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어진다.

4. 교회 목회자가 “못해요”라고 말하

지 못했다. 어떤 교회 목회자(leader)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거나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목회에 “못해요”라고 말할 못했다. 어떤 목회자는 단순히 “못해요”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하다.

5. 교회 목회자가 중단의 두려움을 가

지고 있다. 일단 한 프로그램, 사역, 활동이 시작되면, 그걸 철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가끔 목회자들은 프로그램을 철회할 용기가 부족하다. 가끔 프로그램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눈을 감게 된다. 가끔은 더 좋은 대안이 없어서 프로그램 중단을 주저한다. 프로그램 중단과 관련해서 더 힘을 쏟아야 한다.

6. 교회는 종종 건물의 주소를 정의된다. “교회”라는 물리적 위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가진 건물의 주소가 떠올릴 것이다.

<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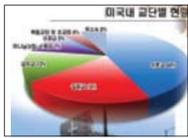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오펜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민경엽 목사



본지가 보도한 2017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푸른/초/장
고택원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시133)

일시: 2018. 1. 2(화)~5(금)/5:20am, 6(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신년축복성회

일시: 2018. 1. 25(목)~28(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비전센터(본당)
강사: 유재명목사(안산 빛나교회 담임)

www.gracemi.com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Tel:714)446-6200, Fax:714)446-6207



유재명목사

1. 미주한인교회 4,018개, 주별 1위 CA(1617호, 1면)

2016년도(11월말) 미국내 52개 주 한인교회 수가 총 4,018개로 집계돼, 전년도(2015년 말 4,016개)보다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7개국의 한인교회는 1,298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6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연례대로 캘리포니아 1,162교회(1,163), 2위 뉴욕 420교회(416), 3위 뉴저지 259교회(255), 4위 버지니아 198교회(199), 5위 텍사스 195교회(195)로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계됐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최다 교회수를 나타낸 5개 주는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2. 여성동산교회 기갑 교단 탈퇴(1622호, 9면)

후임 목회자 문제로 내용을 겪어왔던 여성동산교회가 결국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여성동산교회 교인들은 1월 29일 오후 12시 교회 본당에서 교인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KMC)에서 탈퇴하는 한편,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결의, 추대하고 독립교회로서의 새 출발을 선포했다.

교회 재직 126명 가운데 102명(위임 11명)이 참석한 교인총회는 이날 발표한 '여성동산교회 선언문'을 통해 교단의 정경에서 벗어나 선교제일주의를 표방하겠다는 교회의 입장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와 선언은 LA지역 선교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왔던 여성동산교회의 선교역량이 다시금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어 교계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다.

3. 월드미션음악과 한인학교 최초 교회음악박사과정 ATS 인준(1626호, 9면)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가 미국내 신학교 학위인증기관인 ATS로부터 한인신학교 최초로 교회음악 박사과정(DCM) 및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상담대학원 분교 인준을 받았다.

동 대학교는 3월 8일 오전 11시 동 대학 컨퍼런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재 WMU에 재학 중인 학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계 340명이 재학 중이고 38명이 교회음악과정(학사, 석사), 상담학(원격 캠퍼스) 70명, OC캠퍼스에 16명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4. 뉴욕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1629호 10면, 1634호, 10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서류미비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교계가 앞장 서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뉴욕교회(회장 김홍석 목사)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뉴저지교회와 코네티컷교회가 함께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SC)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4월 6일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개최됐으며 3일 뉴욕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 5월 9일에는 제1차 화요기도모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피난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 교회 갱신이 이뤄지며 뉴욕을 거룩한 도시로, 미국을 피난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5. KAPC교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1630호, 9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주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4월 6일 오후 5시부터 필라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개막됐다.

이 컨퍼런스에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의 목회자들과 비블리컬 신학교 동문과 재학생, 인근 지역의 평신도들, 해외 선교사들이 이르기까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기조강연은 김성봉 목사(한국 개혁주의장로교연구소장)가 "종교개혁의 내 용과 의의"

집주인으로부터 차별당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용기 있게 대응한 한인 다인 서(Dyne Suh) 씨 기자회견을 4월 10일 오전 10시30분 한미연합회 컨퍼런스 룸에서 열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모든 사회에 공개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곳곳에서 인종차별 관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함께 치열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합회는 중재 및 분쟁 조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4.29분쟁조정센터(4.29센터) 활용을 알렸다.

4.29센터는 1992년 LA폭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종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며, 발제에 이어 이승현 박사(ITS총장),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학교 교수)가 논찬자로 나섰다.

8. 종교개혁 다민족기도대회(1643호 11면, 1657호 11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2017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10월 29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한기홍 대표대회장은 "회개, 성결,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자마대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조용하면서도 강한 물결 일으키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 헤븐스밴드 베스트 뮤직비디오 2위(1648호, 11면)

남가주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천밴드가 전 세계 인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매달 열고 있는 뮤직비디오 작품대회에서 한인 최초로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프랑스로 열린 Music Video Underground International Festival(이하 MVUIF)에서 한인크리스천 인디밴드인 헤븐스밴드(리더 최천국 전도사)가 Dejong Film Cinematographers(대표 장유석 전도사)에서 제작한 '괜찮아질 거야(It's gonna be okay)'가 덴마크 남성그룹 Gents의 'Brother'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천국 전도사는 "괜찮아질 거야'의 메시지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크로스오버를 기반으로 하는 크리스천 밴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븐스밴드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https://youtube/hnDI9nCW154)에서 볼 수 있다.

10. 4차 산업 포럼(1655호, 11면)

한인과학기술협회가 주최한 미주 한인 최초 제1차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주제 포럼이 10월 16일 LA 옥스퍼드팰라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재한 선교사(김미진 국제대표) 격려사로 시작된 포럼은 김선호 교수(USC 컴퓨터사이언스 교수, 재미 정보과학기술자회 회장)가 '4차 산업혁명 개요'라는 주제로, 박재호 박사(하버드칼리지 IT센터 부소장)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오후에는 켈안 선교사(GMIT대표)가 '미래과학 기술 혁명과 사회, 윤리적 이슈'라는 주제로,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가 '미래과학기술혁명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으며 켈안 선교사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했다.

패널 토론은 이상명 총장의 발제한 내용을 송운철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신약학 교수),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 김일권 선교사(OM캠 대표)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했다.

(정리: 편집부)



본지가 보도한 2017년 한인교회 10대 뉴스

<순위는 보도 날짜 순>

그리고 이후 500년"이란 주제로 했으며 만난 후 컨퍼런스는 Dr. Frank James(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종교개혁이 현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둘째날 강의를 김은일 교수("종교개혁적 성경관을 통하여 본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조진모 목사("칼빈의 지식과 경건: 성경적 신앙 개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고찰"), 조영천 목사("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목회의 개혁")가 했으며 주제 강의를 김성봉 목사("오늘날의 한국 개혁교회의 현황과 교회의 개혁")가 했다. 마지막에는 "개혁선언문"이 낭독됐다.

6. 한미연합회 에어비앤비 인종차별 피해자 기자회견(1630호 9면, 1631호 14면)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에어비앤비(Airbnb)

1997년 설립됐다.

7. 종교개혁 500주년...이민교회 진단하다(1640호 9면, 1659호 11면)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포럼이 7월 오후 1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포럼은 4명의 발제자와 3명의 논찬자가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져 진행됐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민중기 총현선교교회 담임),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정성욱 덴버신학교 기독교신학교수), '종교개혁 500주년과 현대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 모색'(권연경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교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 주제로 진행됐으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LA 지역 무료 공개 강좌 및 입학설명회	
수요 오후 5시 30분	1차: 1월 17일 위기가정상담과 치유(김영철 교수) 현대문화와 리더십개발(황의성 교수) 2차: 1월 24일 예배 인도를 위한 기타 교실(조석희 목사) LA 확장 클래스 (문의: 213-422-9966, la@gm.edu)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플러튼 본교 오픈 특강	
미디어 사역을 위한 자막(CG)및 영상광고 제작 실무 과정 (3학점) 1월 15-18(월-목), 22-24(월-수) 30(화) 8일간 저녁 5:30-11:00pm	강사: 제임스구 교수 및 실무전문가 청강: 150불, 교재및간식50불
해택: 실무 자막 프로그램 실습, 한글 및 영어 성경 자동 자막 및 복음송 및 찬송가 5000여 곡 자막 소스 제공	



2018년도 봄학기 등록 시작: 2018년 1월 8일
봄학기 수업시작: 2018년 2월 5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카카오톡: gmu3000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 칠천인(1) -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신다. 그 다루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다. 그 거룩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 된다. 세상 곳곳에 숨겨 놓으신 거룩한 백성, 칠천인들을 통해서 말이다. 고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말살하려는 책동이 세상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지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존 위클리프가 태어난 13세기 구라파는 영적 캄캄함이 가득했다. 진리를 왜곡한 교황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골몰했고, 그 아래 사람들도 세습권력의 달콤한 맛에 길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라파의 기독교인들은 이름뿐이었다. 참된 회개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나 칭의를 알지 못했고 그저 교회 전통에 따라가는 것으로 자족했다. 성직자들은 교황청

에서 지시하는 것만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구실만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만 골몰했다. 그런 돈들은 교황청을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용도로 쓰였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상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바로 1320년 잉글랜드 요크셔에서 출생한 위클리프였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문에 대한 관심을 사신학에 집중하고 철학에 대한 공부를 지속했다. 그리고 동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철학을 강의하던 중 1366년 왕실의 전속 신부가 되었다. 그는 지식인으로 성직자의 길에서 교회의 영적 지식에 상반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양심의 강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당시 그런 경협을 한 사람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용기가 없거나, 또는 누리는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교황청은 돌로 갈라져 서로가 참 교황이라고 싸우던 시절이었다. 67년 동안 아비뇽(1309-1377)으로 이전했던 교황청은 드디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권세를 누렸던 불란서 추기경들을 로마로 이전한 교황이 숙청을 단행하지 아비뇽으로 탈출하여 자체적으로 교황을 또 뽑았다. 이 때문에 전 유럽 국가들은 편리한대로 줄을 섰다.

당시 잉글랜드는 당연히 아비뇽의 교황을 거절하고 로마의 교황인 우르바노(Urbanus 1378-1389)6세를 지지했다. 과거 백년전쟁 중에 항상 불란서 편을 드는 교황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모습을 보면서 위클리프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 두 교황의 치열한 싸움을 보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실망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거룩함을 도모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저자거리의 패거리와 다를 게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성서였다. 성도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성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성서의 기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전통적으로 세계의 모든 가톨릭 교인들을 이끌고 있는 바티칸의 주장은 성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때 얻은 결론은 바티칸에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비 성경적

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어거스틴의 선택과 유기를 믿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윤리적 삶을 통해서라고 믿었다. 즉 교황들이 사도들과는 정 반대인 방향 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루시퍼의 저주받은 팔에 안긴 유기자요, 그들의 앉아있는 자리는 적그리스도의 권자라고 결론지었다. 고로 그런 자들이 집례 하는 성찬은 효력이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의 규범이 되는 성서를 읽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당시 바티칸 당국을 도전하는 두려운 일이었다.

당시는 자국어에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다. 고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있었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해야 했다. 이런 일은 가톨릭을 수용한 전 구라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결국 예외는 없었다. 참고로 자국어에 성경을 번역하도록 허락한 것은 1963년에 시행되었으니 무려 6백 년 전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성경을 허락 없이 번역하다가 발각되면 화형에 처해지는 시대였다. 고로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려 백 몇 십 년 전에 리용의 왈도(Waldo)가 수사를 고용하여 4복음서를 불어로 번역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존 위클리프가 자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 일은 앞으로 일어날 개혁자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행동이었다. 더 나아가서 어둠에 잠혀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한편 금기였던 바티칸의 잘못을 선포했다. 교황의 영적 특권에 대해서 질타했고 교황의 주장에 성서에 비추어볼 때 잘못되었다고 선언했다. 교황 자신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했다. 결국 교황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고난이 동반한다. 그는 가톨릭의 화체설도 비판했는데 그것은 이제껏 그를 지지하던 잉글랜드의 귀족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옥스퍼드 학자들은 그를 이단으로 선고했고 런던에서 열린 지역공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었기에 그는 궁정에서 나와야 했다. 고로 그는 생활고로 왕실에서 하사한 직책을 팔아야 할 정도였다.

죽을 각오 없이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좇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주를 쫓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된 이후 비 진리에 대한 질타를 멈추지 않았다.

1384년 12월 31일 64세가 되던 해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바티칸의 가

시 같은 존재였으나 정치적 역학 때문에 자연사할 수 있었다. 그가 죽은 후 1415년, 독일의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선언했다. 그의 서적은 불태우도록 했고, 그의 무덤까지 파헤치도록 했다.

당시 마르티노(Martino, 1369-1431)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로마 출신 교황이었다. 그런데 그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에 그에 대한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죽은 지 44년이 지난 위클리프의 묘지는 파헤쳐졌고, 그의 시체는 부관참시를 당한 후에 화장하여 뼈 가루는 스위프트 강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전한다.

토마스 풀러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태워 시내의 급류에 던졌다. 그 시냇물은 아본 강으로, 아본 강은 그것을 세브르 강으로, 세브르 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사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했다..."

위클리프야말로 당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이었다. 그 한 사람으로 구라파가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신 칠천 인을 찾으신다. 당신은 그 칠천임을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 진리를 위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주후 4세기경 이집트의 사막에서 고행하던 젊은 수도사 아타나엘은 당시 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고급 장부이자 무용수인 타이스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타이스를 찾아서 방탕한 삶의 덧없음을 말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타이스는 향락적인 사랑과 쾌락 외에는 기쁨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타나엘을 유혹하려 합니다. 아타나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하면서 타락에 빠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권합니다. 계속되는 아타나엘의 진지한 권유에 타이스는 많은 갈등을 하다가 과거를 청산하고 수녀원에 몸을 위탁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떠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을 걸어 마침내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아타나엘은 수녀원장에게 타이스를 맡기고 이별을 고합니다. 타이스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신앙심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타나엘은 타이스에 대한 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타이스의 환영을 보고 또 타이스가 죽어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는 잠을 수가 없어 사막 길을 달려갑니다. 타이스는 빈사상태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아타나엘은 타이스의 옆에 엎드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타이스는 고요히 눈을 뜨고 아타나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타나엘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던 일, 오아시스에서의 조용했던 한 때의 추억, 그리고 아타나엘의 경건한 훈계의 말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 아타나엘은 타이스에게 미칠 듯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타이스는 하늘을 가르키며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꽃을 한 아름 안고 미소를 띄우며 나를 영접

하네"라고 노래하며 죽어갑니다. 애욕에 사로잡힌 아타나엘은 일그러진 얼굴로 타이스에게 사랑을 호소했지만, 그녀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둡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신앙을 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타락 속에 살다가 마지막을 거룩하게 마치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삶이 부끄러운 사람은 이전의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1.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God gave him success)"고 하였습니다. 여기 형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42:1).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게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물만이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가슴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타이스의 명상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란 작품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타이스'라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등한하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삼상 2:30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겼고 그는 실패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을 존중하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 여기셨고 그는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시야의 실패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한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끝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

타인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는 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에 강렬한 감동을 주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한 사람, 당시 26세였던 브론 클리포드는 당시 기독교계 언론으로부터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명 설교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 그는 키도 크고 잘 생겼으며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성의'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초청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27세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척 템플턴과 친구사이로 함께 십대선교회에서 사역했는데, 템플턴의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1946년 복음주의 협회에서 지난 5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였던 사람들에게 관한 논문이 척 템플턴은 가장 화려하게 조명되었는데 반해 빌리 그레이

3.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웃시야 왕이 분향하려 할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왕을 막아섰습니다.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이 일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웃시야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때 깨닫고 회개했다면 웃시야의 남은 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왕인 나의 뜻을 막느냐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내 당장 너를 요절내고 말겠다"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성전으로 끌어내 보냈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쫓겨나 급히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 환자로 별궁에 격리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탄의 선지자 나단과 와서 범한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처럼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은 다행히 끝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웃시야의 말년과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7면으로 계속)

끝이 좋은 인생

(역대하 26장 1-23절)

손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웃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어 52년간 재임했습니다. 초기에 웃시야는 정직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잃었던 땅을 회복했고, 주변 적들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했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5절의 말씀대로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진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스티브 파라가 쓴 "하나님 사람"이란 책에는 1945년에 미 전역을 뒤흔던 세 명의 탁월한 젊은 목사들을 소개합니다. 척 템플

(7면으로 계속)

한해의 마지막을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개인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가정과 자녀, 교회와 우리 조국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어떤 믿음의 삶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한마디로 흐르고 퇴적되는 세월의 양만큼 죄와 불순종이 가득하였음을 보게 된다. 조국을 사랑하고 이 땅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온전한 기도와 봉사의 헌신이 부족했던 아쉬움을 돌아보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면을 소모하며 쓴 글에도, 부족하기 그지없어서 후회 일게 되

미가 없는 것이다. 힘들어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흘릴 때 의미가 있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며 흘리는 눈물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해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열매의 좋고 나쁜 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만사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함을 더욱 회개와 반성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될 때 풍성하고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징계의 의를 인정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의

제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놀러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협력했던 분이 라고 할 때에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를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충분히 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다면, 한순간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목사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총격의 여진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 되더라는 것이다. 더불어 목회자인 나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변화됨을 느낀 것이다.

지만, 상황의 발전 자체에 몰두하지 않음이 회복의 길이 된다. 물론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앞서 간구할 것은 '하나님 이문제 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할 때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과실나무의 가지치기가 완전한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탄실하고도 완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나무가 심겨진 뿌리의 문제부터 해결할 때에 가지치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부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과교회)



회개와 반성으로 마무리하는 연말

- 정결한 그릇위에 은혜를 담아주소서

는 이들에게 미안한 근심을 가지게 된다. 살아온 시간만큼 회개할 일만 쌓여있음을 본다. 더불어 크고 많은 회개의 제목들이 줄을 서서 기다림으로, 기도시간이 부족한 마음이다. 이처럼 신앙인의 진정한 회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의 기도공을 지냈을 때이다. 육신과 영혼의 생각과 모든 것이 회개의 스크린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회복을 맞보는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다. 최근 교회에서 연말 40일 특제를 지나면서, 더욱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져본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은 회개와 반성에 대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은혜와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회개 기도할 때에 억지로 매 맞기 위해서 섣달에 불려가는 아이의 심정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매는 맞겠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일을 반성하지 못한다. 나만 채수 없게 걸렸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재수있게 걸리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매를 맞는다면 그 매는 의

의를 인정할 때 나타난다.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되고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었다. 그렇게 주를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징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탄식하지 않고 회개하는 열린 문이 되는 것이다.

올해 중반에 10년을 함께 신앙 생활하신 분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생겼다. 몸살을 하고 알아누울 정도로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참 좋겠다.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으, 있어도 나가라는 말도 안 듣고 사니...'라고 하면서 온전히 못한 마음들이 생겼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었다. 이런 약한 마음들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더 깊어짐을 느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매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사람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람 원망하다보면 인생 세월이 다 가버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원수지고 관계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어려움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있다고 믿을 때에 그 사람 자신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다고 믿을 때에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화병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관계회복을 위한 회개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어떤 경우에도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문제의 근본이 되는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 때문에 죽겠습니다.' 필요는 하겠

던히 열심히 애를 쓴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전심으로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만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다음 순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르짖는 회개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간절할 때에, 격한 고난 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을 때, 조용히 조곤조곤하는 기도가 되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도할 때에 조용조용 하도록 수 있고 차분하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아직 될 급한 상황이다. 조곤조곤 기도하다보면 그 많은 고통의 파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덮치고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파도가 밀려와서 기도하는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 것이기에, 그 삼켜버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아우성 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0년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로마의 디도(Titus)장군이 그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매우 불행하게 죽었다는 말을 어느 부흥강사를 통해 들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과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Hyung Kim

A: 주후 39년경에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신을 자칭하며 황제 숭배를 위해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는 중에, 유대인의 성전에 황제 신상을 세우게 한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의 민심은 폭발해 버렸습니다. 유일신 야훼 하나님 외에는 주(主)가 없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우상화하는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했고 로마인이 세운 성전의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성전세로 민중들을 수탈한 죄의 증거인 채무 문서를 불태워 버림으로써 로마제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사태악화에 놀란 로마는 이스타니엘을 진압할 인물로 전투에 노련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파송합니다. 6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족축발의 상황에 갑자기 로마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군대가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취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파괴한 디도 즉위 후 폼페이 멸망 등 2년간 각종 재해 만연

은 축제를 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퇴각이유는 로마 황제 네로의 자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후 70년경에 네로의 뒤를 이어 자신이 황제로 추대되자 골치머리인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기 아들 디도에게 맡깁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은 8만의 군대를 이끌고 치밀한 계획아래 270만명이 사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포위 작전으로 식량공급을 차단하자 결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8월말로, 당시의 역사가 소(小)플리니우스는 폼페이의 멸망을 8월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디도장군은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자 79년에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 즉위하자 두 달 만에 베시우스 화산 폭발로 나폴리 근교의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스타비아 등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땅 속에 묻히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폼페이의 멸망을 로마시대의 소동과 고고라의 멸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8월말로, 당시의 역사가 소(小)플리니우스는 폼페이의 멸망을 8월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디도가 황제가 된 후 이상하게도 계속되는 재난과 질병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기원후 80년 로마에 사할 동안에 걸친 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 로마를 재건하는 데도 그는 힘썼습니다. 또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시작한, 콜로세움으로 더 잘 알려진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잡은 유대인 노예들을 노동시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스트의 창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디도황제는 열심으로 재해구호에 힘쓰다가 주후 81년 9월 13일 황제로 즉위하자 불과 2년 만에 불행하게도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Shay Cohen은 폼페이의 멸망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질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폼페이의 멸망을 직접 연결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형벌로 내린 재앙이란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자,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은 결국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처럼, 폼페이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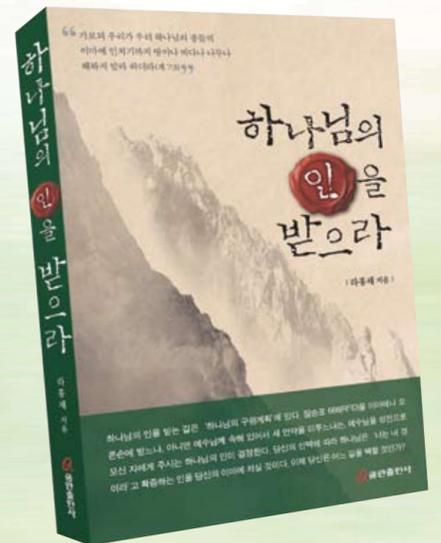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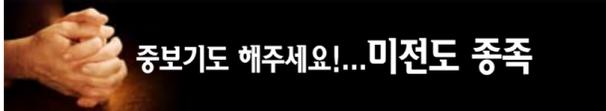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벵갈 부족(BENGALI TRIBES)



벵갈족과 관련된 6개의 부족들의 통합 프로젝트이다. 벵갈족 대부분은 그들의 공통 언어인 벵갈어로서 쉽게 정의되는데, 벵갈족이라고 언급은 되지만 벵갈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부족들이 몇몇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아어 계의 아쌈-벵갈 어군에 속하며 인도의 하종과 키산간지아족, 방글라데시의 하종과 타즈푸리족, 네팔의 라즈반시와 카요르트족 등의 부족이 있다.

하종족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산지에서 원래 살던 부족이며 그 후 북쪽으로 이주했다. 오늘날 그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의 중동부, 주로 가로 산지의 남쪽 경사에 있는 미멘신그 주 북부에서 살고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인도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아쌈, 서벵갈, 아르나찰 프라데시 주에서 살고 있다. 불행한 것은 지금 아르나찰 프라데시에서는 주민다수가 30년 동안 살아왔음에도 철거 대상이 되고 있다. 타즈푸리족은 인도 접경의 방글라데시 북부에 위치한 랑푸르 평야에서 살고 있다.

삶의 모습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사는 벵갈인들의 약 80%가 일정한 형태의

농사를 하고 있으며, 논벼가 주요 작물이고 밭과 감자도 최근에 추가로 재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방직술과 자수에 있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만든 물건을 매 주마다 열리는 시장에서 거래한다.

무슬림 침략자들은 12세기에 방글라데시의 힌두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벵갈 부족들 다수가 1600-1700년경에 무슬림에게 정복당하면서 산지로 피난 갔다. 그들은 나중에 되돌아와 근처 평야에 정착해 계속 그곳에서 대부분이 살고 있다.

"씨족 체제"는 과거 벵갈 부족공동체가 알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 부족들이 힌두교를 받아들인 후 힌두의 카스트와 관련된 12개의 씨족들을 받아들였다.

남아시아의 다른 대부분의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벵갈 부족들은 분명하게 노동이 분업화되었다. 가족의 직업적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남자는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

일반적으로 여러 벵갈 부족들은 "힌두화" 된 종교를 갖고 있다. 그들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받들어 수백만의 힌두교 신들을 숭배하지만 전통신앙도 지키고 있다. 단지 한 벵갈 부족, 방글라데시의 타즈푸리족은 상당히 많은 수(거의 30%)가 무슬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슬람과 함께 전통신앙을 따르고 있다.

벵갈의 부족 종교는 다양한 마술신과 가정신에 대한 신앙을 기원하는 타즈푸리족의 경우인데 그들도 점차 이에 따르고 있다. 벵갈 부족공동체의 대부분에는 미혼 남성들이 사는 특별한 공동주택이 있다. 이 주택은 마을 장로들의 모임장소로도 사용된다.

한 벵갈 부족인 타즈푸리족의 종족 기원은 많은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위대한 왕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 가장제 사회에 속해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카요르트, 키산간지아, 타즈푸리 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경은 아직 없다. 타즈푸리족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12,000명의 인구 가운데 단 한 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있다고 한다. 현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는 것이다.

벵갈 부족 대부분이 힌두교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박해와 종교 갈등을 겪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부족들은 전체 인구의 소수(11.3%)에 불과하며, 많은 사회적 거부감과 종교적 박해를 경험했다. 인도에 사는 부족들은 난민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방자로서 대우받고 있다. 이러한 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벤젤리칼스” 탐뉴스 선정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도 박탈해야한다는 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6. 텍사스 서터랜드제일례 교회 총기 대량 살상 사건

가정불화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교회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린이들과 성인 2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안전장치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7. 엘라베마 상원 보결 선거 후보로 로이 무어 당선

한때 "십계명 판사"로까지 불린 극단 보수주의자 로이 무어가 엘라

베마 상원 보결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심대 소녀들과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속에서도, 무어는 백인 복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기에, 전국적으로 무어 당선은 쟁점으로 부상했다(RNS 투표 결과는 12월 8일에 나왔기에, 엘라베마 상원 선거 결과는 10대 종교뉴스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8. 트럼프와 공화당 상원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사법부 물갈이 성공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차선의 선택"으로 지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목적은 바로 지난 8년간 진보주의자들로 채워진 사법부의 전격적인 물갈이였다. 따라서 선거에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공

화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법원 요직에 보수주의자들을 두루 전진 배치시켰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연방대법원에 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시킨 것이다.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고서치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해 2월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또한 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보수와 진보 4대4 구도에서 5대4의 보수우위 구도로 다시 돌아갔다. 특히 고서치 선임 대법관은 9명 중 유일한 개신교신자로서 헌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이며 확실한 보수 성향의 판사다. 따라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 등과 관련된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9. 소수인종 차별 저항 의미로 NFL 흑인 선수들의 '무릎 꿇기'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니가 미국 사회에 만연한 경찰의 폭력과 유색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작한 국민례 거부 행위인 '무릎 꿇기'가 올해도 선수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한 국민례대신 무릎을 꿇은 선수들 모두를 싸잡아 "애국심이 없다"고 막말을 하자, 사태는 더욱 커져 대안 우익이나 백인우월주의에 저항하는 형식으로 확산됐다.

10.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이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개최됐다.

깊숙이 있는 한 교회에서 활동적인 야구 문화가 있었다. 거기서 교회 사람들과 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지역 야구팀이 편성됐다. 그러나 교회에 체육관과 휴게 장소가 지어지지 않자,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의 새로

운 시설에서만 야구를 하게 됐다. 교회 안에 좋은 체육관을 갖는 것이, 모순적이게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좋지 않게 됐다.

은 무어를 지지하는 트윗을 쏟아내며 엘라베마 유권자들에게 존스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식 유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무어 선거운동은 다시 진흥을 추של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선거를 앞두고 엘라베마 주와 인접한 플로리다 주 펜

사콜라에서 무어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을 한 뒤 존스 후보 측에서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근소하게나마 앞서던 무어 후보의 우위가 사라졌다.

결국 이번 선거 패배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노선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탄절 1주일 앞두고 IS, 파키스탄 교회에 만행

성탄절을 1주일 앞두고 파키스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모인 기독교 신자들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17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쿼타에 위치한 벨엘기념감리교회에서 테러리스트 2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부상한 이들 중 일부는 중태로 알려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번 폭탄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쿼타 경찰 측은 현장에서 도망친 또 다른 공범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발루치스탄주 당국은 예배가 진행 중이던 교회에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무장괴한 2명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다. 난사 이후 테러리스트 중 1명이 교회 분당 입구로 달려가 폭탄을 터뜨렸다. 나머지 1명은 폭탄을 터뜨리기 전 경비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살됐다. 주 관계자는 "테러리스트들이 교회 분당으로 들어왔더라면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뻔했다"고 말했다. 평소 벨엘기념감리교회는 평소보다 많은 40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독교계를 위해 사회·정치적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면 알프레드 길씨는 "사법 당국이 일반 시민들, 그중에서도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은 기독교 기념행사가 물려있는 달"이라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경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목격자는 "폭탄을 터뜨린 1명은 정문으로, 나머지 3명은 뒷문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신자가 다수인 파키스탄의 기독교도 숫자는 전체 인구 2억여명 중 2% 정도로 약 400만명이다. 그중에서도 발루치스탄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력투쟁과 종파 간 갈등으로 유혈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테러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기념일인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

(1면에서 계속)

많은 교회가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의 일로 바빠서 지역의 일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는 교회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좋지 않다.

7. 교회는 종종 문화에 다가가지 않고 문화와 경쟁한다. 남부

(2면에서 계속)

이어 11월 초, 워싱턴포스트가 먼저 특종을 터뜨린다. 지방검사로 일하던 30대 시절, 무어가 10대 소녀 4명을 성적으로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14살이었다는 내용이였다. 무어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했다. 한

명은 무어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무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해도 엘라베마 주 선거다보니 여전히 무어에게 승산이 있어 보이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섰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41. 임정구(1886-1939)

임정구는 1886년 10월 25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났다. 평양의 미북감리교 선교사 윌리엄 A. 노블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임정구는 명석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간청을 잘 이해하였고, 친구들은 그의 지성과 진실함을 인정하였으며, 남을 배려하고 풍부한 유머로 노소를 불문하고 다정하게 지냈는데 자문가로 교수로 멘토로 친구로 힘을 북돋았고 가족과 친구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업플랜드 교회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한 이듬해인 1906년 그는 상항을 거쳐 나성에서 노동하며 소학교를 마쳤고, 나성 인근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1911년에 샌페르난도 중학교를 졸업한 후 포모나 대학에 진학한다. 인근 업플랜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스튜어트 부인이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설치할 때 영어가 생소한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그는 임도와, 김장물 그리고 정월연 등과 함께 매주일 한 주일씩 교대로 통역을 해주었다. 포모나 대학을 졸업한 임정구는 1915년 상항으로 이주한다. 1917년 버클리 가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그가 상항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하던 1919년에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2년 후에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그는 1929년에 버클리 태평양 신학교에서 문학사를 받고 1930년에는 신학박사학위

를 취득한 공부하는 목사였다.

오클랜드 교회

1915년 상항에 도착한 임정구는 상항교회 청년회에 가입하여, 교회야유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해 6월 오클랜드 교회의

지향전도사로 임명되어 조성학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전도사로서 6년, 목사로서 18년, 총 24년간 양복점, 식품점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였다. 1931년에는 엘리스 스트리트 911번지로 예배당을 옮겼다. 1935년과 1936년에 한 설교로는 '소유 보관하는 책임,' '주고받는 것이 인류 생활에 필요함,' '미국 재정계의 현상과 장애,' '현세구원,' 그리고 '인생의 복리가 재정 이익보다 중대'가 있다. 1935년 12월 22일 주일 저녁에 있었던 성탄축하식에서 당시의 상황을 들려다보게 된다. 상항 동포도 다수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는데 이 해만큼은 다른 날에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3부로 나누어 1부는 간단하고 경건한 예배를

보았다. 2부는 노 전도사의 사남매의 합창 등 주일학교 발표가 있었고, 3부에서는 미국의 처음 인삼담과 임정구의 성탄절 각종 풍속에 관한 설명 그리고 산타클로스 선물 분배가 있었다. 이후 여흥으로



임정구 목사

고국 노래와 신식 창가를 주고받고 하며 즐겼다.

임정구는 통역 등 한인 정착생활을 도왔는데 1926년 노신대 전도사가 가계세 40달러에 집세 12.5달러를 내면 끼니를 걱정할 정도

진 스탠톤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돌보는데 힘썼다. 그 해 4월에는 임정구 목사의 부인 임애성을 통해 부인전도회를 조직했다.

1920년 4월 이곳 한인여관에서 모인 제3회 창립기념일의 순서는 다채롭다. 임애성과 방살로매의 창가로 개회한 후 강윤선의 개회취지, 전진영의 부인회 역사 진술, 방살로매의 독창이 있던 후 임애성의 설교가 있었고 이어 방정석으로부터 부인전도회를 돕자는 의견에 따라 의연이 있었다.

임정구는 1928년 이후 김 탁 목사를 파송하였고, 결혼하기 위해 귀국한 김 탁 대신에 설교했을 때 '눈이 있으면 바로 보자 귀가 있으면 바로 듣자'라는 주제로 예수를 바로 보고 들어서 조선에 소화시켜야 된다는 대지로 여러 과학적 실례를 들어 역설하였다.

1930년과 1931년에는 김 탁과 공동목회를 하였다. 교인 수는 1917년에 20명이 되지 않다가 1922년에는 30명이 되었고, 1931년에는 62명이었으며, 교회학교의 경우 1922년에는 1명의 교사에 학생이 10명이었다. 1924년에 국어학교 교장에 박용복, 교사에 김 탁을 선정하였고, 22명이 등록하였

에 배당에도 모일 사람이 없었음으로 천정은 거미줄로 그물을 쳤고 교회 의자에는 티끌이 가득하여 유감이었다. 그런데 1924년에 동포들이 모여들어 7월 13일 첫 예배에 25명이 참석하여 임정구가 예배를 인도하였고, 주일학당을 조직하고 윤도연부인과 송필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3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그 달 10일에 국어학교도 다시 설립하여 교장에 김현구, 총무겸 재무에 윤용호, 교사에 송필만이 선임되었다.

삭도 교회

1921년 교세가 약화되던 삭도교회로 파송 받아 1939년까지 섬겼다. 그런데 1927년에 정철대 목사가 사임하고 그 해 김 탁 목사와 공동목회를 하였다. 본 교회는 오전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로 모였고 오후에는 전 교인이 예배를 드렸다. 정몽룡의 주택 하층을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1936년 이웃집에서 옮겨온 불로 연소되었지만 손해는 많지 않았다. 삭도 교회의 교인은 1921년 63명이었고, 1939년에는 85명이었다. 1928년 국어학교 유지를 위하여

1926년 9월 임정구는 감리사 데이비스 목사와 함께 라성 감리교회를 조직하고 목사에 한승곤, 서기에 김관우, 유서에 김성권, 황성택, 박재형, 이영수, 주일학교 교장에 박경신, 평신도 대표에 임정수로 선정했다. 1919년 8월에 북미한인교회 공의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북미 한인선교에 힘썼다. 본회는 기미 독립선언과 관련하여 1천 달러 임시정부 원조, 목사나 전도사의 급부 연조, 국제연맹과 기타 유력한 사회단체에 지원사와 편지 우송 및 내지(한국) 각 교파 총회에 위문편지 우송 등을 결의했다.

독립운동과 민족 운동

임정구는 1906년 공립협회 나성 지방회에 가입한 후 1937년 북미 지방총회 중앙집행위원 겸 구제담당 상무집행위원에 선임되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1907년부터 1939년까지 국민의무, 독립의연금을 지속적으로 냈다. 1919년 감리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와 1930년에는 상항 서양 부인회에서 백인사회에 조국 독립을 고취시켰다.

1930년 광주학생운동 후원을 위해 황사용목사와 금식운동과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고, 조선여자대학 설립과 이충무공 유적보존 후원을 하였다. 또한 경제학도였던 그는 실업연구회를 발기하고 한인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후원하였는데 한인 경제력이 독립 후원에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천

백인 신주택 구역에서 식물상점을 매수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인 1939년 6월 위암으로 하이랜더 병원에서 수술한 후 갑작스런 악화로 12월 28일에 그는 향년 52세로 소천했다. 신한민보의 주필 홍은은 '고 임정구 목사를 슬퍼함'에서 '석상에 보난 증문/전우이 서리웠고/겨울에 슬픈강산/백설이 서리였나니/고인이 먼저갔구나/복이오면 어이리'라고 읊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제74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장남 모세 임의 아들인 하우디 임이 임정구를 이어 목회자가 되었다.

damien.sohn@gmail.com

1915년부터 전도사 6년, 목사 18년, 총 24년간 자비량 선교 다수 교회개척, 목회 동역...1930년엔 신학박사학위까지 취득 독립운동에도 참여, 2013년 한국정부가 건국훈장 애국장 수여

였을 때 사회보조금을 받아 생활했다.

임정구가 전도사 시절인 1914년에 교인은 8명이었는데 본 교회를 사임하던 1939년의 교인은 85명으로 증가했다. 교회학교는 1922년에 2명의 교사에 학생이 6명이었는데, 주일학교와 국어학교를 1929년부터 개교한다는 광고가 신한민보에 있다. 주일학교는 매주일 있었지만 국어학교는 방학기간에 한 주일에 사흘씩 그가 가르쳤다.

스탁톤 교회

임정구는 오클랜드 교회를 담임하면서 1917년부터 상항교회의 이대위 목사와 강영수 등과 함께 오클랜드에서 동쪽으로 80마일 떨어진

스탁톤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돌보는데 힘썼다. 그 해 4월에는 임정구 목사의 부인 임애성을 통해 부인전도회를 조직했다.

맨티카 교회

1915년 경 맨티카에 동포 사업가들이 많이 거주할 때 임정구는 상항교회의 이대위 목사와 홍은과 함께 교회 설립에 동참했다. 1917년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는 5불을 헌금했으며, 그 해 51명 교인에, 주일학교는 교사 2명에 학생이 40명이었고, 엠투스 청년회는 26명이었다. 1918년 대한여자 전도회를 조직했는데 제2회 창립기념회에서 강유선 회장, 김원도, 강일리 그리고 강신애 등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이곳 동포들이 헤쳐져 1920년 이후 4년간 한인촌만이 쓸쓸하며

임정구도 5불을 기부했다.

기타 교회와 단체

임정구는 1918년에 윌로우스 지방 교회를 개척했다. 1920년에는 트레이시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이들 두 교회는 이후 보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을 닫은 것 같다. 1922년 임정구는 리틀리 동포와 협상하여 한인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전에는 6,7 마일 떨어진 다뉴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윤병호, 이병영, 안석중을 임원부로 조직하고 전성룡의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이듬해 9월 윤병구 목사가 파송되었고, 1927년에 임정구가 김 탁 목사와 공동 목회를 할 때 교인수는 45명이었다.

(4면에서 계속)

우리가 죄를 뉘였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회개할 때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100미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은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지구력과 욕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진정으로 끝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람 있게 잘 보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까? 잘 보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

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후회가 많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실수

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망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taekwonkoh@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제세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문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dis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			
뉴저지서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평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성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q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Fax: (5511)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AÍ-34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Í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오후 7:40, 영.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사제사녀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5:30(월-토)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www.hawaiichurch.org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8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성경도 신앙 (46)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3) 초창기 식민지의 사회적 상황
초창기의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 식민지 사회의 사회적 계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부 농장들은 귀족 계급처럼 군림하던 귀족풍의 지주, 중간 계급처럼 땅을 경작하던 소작인, 그리고 노예들과 도제살이 하인들의 하류 계급으로 구성되었다. 다행히 미국 식민지에는 사회의 계층과 계급이 가져오는 낯은 봉건양식을 벗어나려는 과정에 있던 북부 유럽인들이 최초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교역의 확대를 꾀하던 상인과 또 군주를 위한 영토의 식민지화에 관련된 중간 계급 출신의 유럽인들이었다. 중상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숙련 노동자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술과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부를 사람들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 뛰어난 숙련 노동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상상적인 사회 이동은 상업에 뛰어들기를 희망한 이들을 위한 토지 정책의 자율화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었다.

리고 기독교적 이상의 나눔이 주어지던 교육제도를 갖춘 하나의 연방이라고 할 수 있었다.

3. 뉴잉글랜드 청교도 교육

1) 청교도 교육의 기초인 칼빈주의
청교도들은 성도의 공동체를 수립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들 자체의 강력한 칼빈주의 형식을 들여왔다. 1620년 플리머스의 필그림에 의해 최초로 기초가 닦이고 더 많은 정착민들이 잇달아 도착했던 매사추세츠에 자리 잡았던 그들은 칼빈주의의 교리와 엄격한 부리주의적 생활양식을 보존할 책임을 제일 먼저 느꼈다. 그들은 죄의 결과인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관한 엄격한 신조(1618년 도르트 종

그것은 1765년 애덤즈(John Adams)의 성명에 반영되었다: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유성처럼 드문 우리 모든 상하귀천의 사람들은 지성적이며 고양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특별히 뉴잉글랜드의 토바이들이다.'

청교도 정착민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공동체였다. 많은 사람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수학한 바 있었고, 또 교육에 관한 높은 가치와 기대들이 있었다. 형식적인 유럽식 접근에서 유래한 교육철학이 그들의 칼빈주의적 열심 내지는 금욕주의와 결합되었다. 이것이 아동에게 두려움과 훈육, 그리고 복종을 일으킨 권위적인 접근을 가져왔다.

3) 청교도 교육의 초창기 대변자
청교도 생활양식과 교육에 대한 최초의 대변인으로 간주되던 사람은 보

A Family Well Ordered)에서 할아버지 코튼의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두에서 부모가 개인의 경건, 순종, 구원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세례를 받게 해야 할 책임에 관해 언급했다.

훈육에 대해 매더는 "가족 종교를 지도하고 장려하는 간략한 글(A Brief Essay to Treat and Excite Family Religion)"이란 소책자에서 가정교사에 대한 진술 가운데 교사 편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교사들이여 엄격하라. 그러면서도 또한 친절하게 되라. 드센 잔혹할 때에 정당한 희망을 타락시키지 말라. 느리게 학습하는 그들이 페리오(Ferio)가...하다는 식의 논증을 통해 개선되리라 꿈꾸지 말라. 학교에서는 징계 외에도 보상을 통해서 훈육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꽤 권할 만하고 또 선택할 만하다."

매더는 읽고 쓰고 스스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매더의 교육철학과 내용의 정신 대부분은 18세기 내내 미국에서 교서로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뉴잉글랜드 초보독본"에서 발전한 것들이다.

매더보다 몇 년 뒤에 설교와 저술에 힘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위식도 역류병

식사 후 가슴 쓰리거나 목 칼칼하면 의심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일단은 주의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배변 후 피가 보이거나 화장지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 먼저 치질이나 치석이 의심된다. 외지질인 경우에는 항문 밖에서 보이거나 만져지지만 내 치질인 경우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치질이 없는 데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검은 변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0대 중반의 독신 여성 K씨는 대형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평소 위장 장애로 고생하던 K씨는 1주일 전부터 피곤하고 현기증을 느꼈다. 이를 전부터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중간에 한번은 난간을 잡고 쉬어야 했다. 평소 직장 일종종으로 평가받고 있던 K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너무 창백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왔다.

K씨와 면담을 통해서 K씨가 평소 위궤양을 앓아왔고 이 때문에 자주 속이 쓰린 증상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속이 쓰린 정도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대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냄새가 심하다고 했다. 몇 주 전에 직장 동료와 외국 여행에서 사온 차를 선물 받아 최근에 계속 마셨다고 했다.

K씨는 검진 상 혈압은 수축기 100mmHg, 이완기 60mmHg였고 맥박은 분당 105회로 조금 빠른 편이었다. 안구가 창백해 보였고 심장 청진상 맥박이 빠르고 심잡음이 들렸다. 혈액 검사상 혈색소치가 7.0g/dL(정상여성 12.0g/dL 이상)로 빈혈이 아주 심했다.

K씨는 상부 소화기 출혈로 진단받고 일단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 수술 치료를 받고 나서 내시경 검사 상 출혈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지혈 치료를 받았다. K씨의 대변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럽고 숨찬 증상도 사라졌다.

장관계에서 출혈하는 경우는 혈변(대변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과 흑변(변이 검게 나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이지장을 기준으로 상부(주로 위와 심이지장 상부)에서 출혈하게 되면 혈액이 대변으로 섞여 나오는데 배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적혈구가 산화 되어서 변이 검게 보이는 흑변이 되고 심이지장 하부에서 출혈하면 붉은 혈변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은 경우 출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부 위장관에서 피가 나더라도 혈변을 볼 수 있고 대장암과 같이 출혈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하부 위장관에서 출혈을 하더라도 대변 색이 검다.

일단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질과 같은 양성 질환도 있지만 위암이나 대장암, 궤양성 위장관계 질환등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청교도의 교육적 관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 교육은 필수... '엄격한 훈육', '빈번한 징계' 좌우명 삼아

교회의에서 규정된 칼빈주의 5개항)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통한 영적인 회심의 필요성을 가르쳤다.

이것은 후에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이 주장한 '기독교적 양육' 개념의 발전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게는 근본적인 회심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2) 청교도의 교육적 관심
청교도의 교육적 관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본래 악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을 실감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전적인 타락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리킨다고 믿었다.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 시키지는 못하지만, 중생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들을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방편이기 때문에 중요했다.

스텐 회중교회 목사였던 코튼(Cotton)이었다. 1641년 그는 담임하던 교회를 위해 "영혼의 자양분을 주는 두가지 성경의 젖을 떤 미국 아기들의 영의 양식(Spiritual Milk for American Babes Drawn Out of the Breasts of Both Testaments for their Soul's Nourishment)"라는 제목의 교리문답서를 저술했는데 거기서 그는 아동의 죄,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성향을 강조하였다. 이 작품의 일부는 뒤에 "뉴잉글랜드 초보독본(New England Primer)"에 실리기도 하였다.

Edwards)는 자신의 저서 "뉴잉글랜드의 현 종교부흥에 관한 사상들(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in England, 1741년 대각성의 시기에)"에서 아동을 포함해서 죄인들은 마땅히 가혹한 죄의 결과와 직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에서 아주 적절하게 묘사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상황에 따른 교육적 영향
초창기 사회의 제도는 식민지의 계급 구분을 영속화하려는 경향을 띠었는데, 수업료 때문에 문법학교와 초창기 대학은 대부분 상류계급 출신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시절에 하버드 대학마저 기재사항에 각기 다른 계급 신분의 학생들을 구분할 정도였다.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가 존재했으며, 학원과 고도로 개발된 도제 프로그램 안에 그것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빈곤대기뿐인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

그 반응은 교육의 일차 목표로 모든 권위에 복종할 것과 존경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1641년의 논쟁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제출했던 다음의 제안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데 '부모에게 정당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난봉이나 추태를 계속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모를 욕하든지 구타하는, 다루기 힘든 아동은 죽음에 내던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도달했다.

17세기 말 청교도 교육가 가장 유명한 사람은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였는데 그는 존 코튼의 손자이자 회중교회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하버드대학의 총장을 지낸 앤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의 아들이었다. 매더는 보스턴의 제2교회에서 부친과 함께 협동목사로 봉직할 당시인 1699년 "질서 있는 가정,

강렬한 칼빈주의와 칼빈의 제네바 신정(theocracy)의 개념을 재창조하려는 욕구 때문에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에서 교회와 정부가 긴밀한 관련을 맺게 하였다. 따라서 그곳에는 '교구'나 '공립학교' 간의 구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는 청교도들이 이상적인 교육으로 여겼던 바를-가정에 조절을 맞춘 독특한 기독교 교육을 보충하는 수준 정도로 계획되었다. 아동교육은 가정에서 일찍 시작되었고 아동은 한 번에 조금씩 교육을 받았다.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의 경제, 정치, 종교생활의 중심지는 도회지였다. 뉴잉글랜드 주민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형편이 좋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상호간의 보호, 지방정부 수립 그리고 '기독교적 공동체'의 준비를 위한 정치, 사회, 종교적 이유로 해서 '집합된 공동체'였다. 그것은 놀라우리만큼 상호간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경험, 목표 욕구, 그

그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아동들을 의도적으로 작은 성인처럼 대우하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기대했던 청교도들의 좌우명은 엄격한 훈육, 빈번한 징계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의 일차적 관심은 아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해독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지침을 준수하였다. 청교도들은 계몽주의에 발단의 뿌리를 둔 인문주의를 신봉하거나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의 종교적 인문주의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 실질한 노동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크게 헌신하였다.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지침을 준수하였다. 청교도들은 계몽주의에 발단의 뿌리를 둔 인문주의를 신봉하거나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의 종교적 인문주의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 실질한 노동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크게 헌신하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영아원(영아:100, 영동:영동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공용), Tel: (213)210-6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나성영락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13)388-72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베델한국교회</p> <p>담임목사: 김한호</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영아원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p> <p>담임목사: 이영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요동부: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www.lagumc.org 1200 S. Manhart St.,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5:30 새벽기도회: 새벽 7: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엘비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성경)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점심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p>은혜한국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6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강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3-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714)749-4500, Fax: (714)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dc.org</p>	<p>좋은미교회</p> <p>담임목사: 신현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새벽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rstonechurch.com / e-mail: pastor@iacom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주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아) 창세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ch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성탄절의 참된 정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세상의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대신한 산타클로스가 평화의 메신저인양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되어버렸고 예수님은 저 멀리에 쫓겨나 버린 인형같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때 우리 사회에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성탄절은 성취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성적 범죄의 기회로 전락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성탄 본연의 참된 정신과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거룩함과 경건함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의 크리스마스를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라고들 말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자는 '성탄절의 5가지 유형', 오늘의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흰색 성탄절(White X-mas)-눈 내린 흰 들녘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성탄절 (2)검은색 성탄절(Black X-mas)-성탄케익 밑에 수표를 넣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기회를 삼는 뒷문거래의 어두운 성탄절 (3)분홍색 성탄절(Pink X-mas)-도색의 음란한 밤으로 성야(聖夜)가 아니라 성야(性夜)로 밤을 새우며 죄를 짓는 성탄절 (4)노란색 성탄절(Yellow X-mas)-동방의 박사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성탄절. 첫번째 흰색 성탄절만 좋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할 세속적인 성탄절들입니다. 레츨리는 '성탄절 십계명'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라! (2)세상업무를 중지하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라! (3)마리아와 요셉이 사관에서는 그리스도의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교회가 벌이고 있는 성탄절 행사에 즐거이 참여하라. (5)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호소에 관대히 호응하라. (6)시간을 내어서 너희 자신의 가정이나 친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돕는 시간을 가지라! (7)크리스마스의 예술이 주는 무한한 값비싼 유산을 음미하라! (8)이웃에게 선물을 할 때 결코 의무감 때문이나 받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마음 때문에 하지 말라. 오직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하라! (9)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라. 빛도 없이 뒤에서 수고한 이들, 집배원 아저씨, 신문배달 소년, 삼정아가씨, 그리고 이 축제의 계

절을 위해 몸으로 수고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라! (10)자녀들에게 성탄절 메시지, 곧 평화의 왕의 참된 메시지를 가르치라! 그는 인류에게 행복을 이르는 길을 제시하러 오셨다!" 레츨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이 아닌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3사람은 세상적으로 값지고 귀한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3가지 선물보다 더 귀한 3가지 성탄선물이 있습니다. (1)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선물-성탄의 첫 번째 선물은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2)아들이 자신을 주신 선물-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

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성탄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3)우리 마음의 선물-성탄의 세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탄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값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영생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선물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산타클로스, 트리, 카드, 캐롤, 선물, 파티 등의 잘못 변질된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타파하면 단타하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올바른 성탄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바로 알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므로 새로운 성탄문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

“예수님은 구원자, 모든 것 해결하시는 분”

축복교회 김정훈 목사, 다민족 부흥집회

한국 축복교회 담임 김정훈 목사가 인도한 LA 다민족 부흥집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에티오피안크리스천펠로교회(구 LA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의 축복교회 김정훈 담임목사의 LA다민족을 위한 부흥집회에서 찬양팀과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원안은 이날 집회에서 김정훈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안수기도하는 모습)

17일 저녁 7시에 열린 마지막 집회는 40인조로 구성된 축복교회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인도로 시작돼 이날 집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정훈 목사가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누가복음 19:1-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말씀을 전하는 중간 중간 청중들과 찬양을 함께 부르며 집회의 집중력을 이어갔다.

김목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의사이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요 치유자”라 말하며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그가 젊은 시절 한때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였고 비전을 심어주셨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은 해외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

라는 것이었으며 2차례 복음을 전하러 외국집회를 인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LA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복음전도집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말씀을 마친 후 모인 청중들에게 축복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중들은 김 목사의 간도를 받으며 단상으로 모여들었으며 안수기도를 받은 자들은 감격

에 젖어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스텝들에게 집회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는 금요일은 저녁 7시30분, 토요일은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한인졸업생들이 박성진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와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한국어과정, 박사 7명 등 총 17명 학위 받아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제 62회 졸업식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제62회 졸업식이 지난 8일 거행됐다. 전체 129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국어 과정을 통해 학위를 받은 학생은 총 17명(석사 10명, 박사 7명)이었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성경사역학철학박사(Ph.D.), 교육목회학박사(D.Ed.Min.), 목회학박사(D.Min.), 목회학석사(M.Div.), 신학연구석사(MTS), 가족상담학석사(MACO) 등 다양한 학위과정을 한

국어로 개설해 전 세계 한인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목회학박사 4명, 교육목회학박사 3명, 목회학석사 3명, 신학연구석사 3명, 가족상담학석사 4명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안지영 목사(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달라스나눔교회)가 '신앙공동체 성숙을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는데, 보통 12주 정도걸리는 프

젝트를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동안 진행하며 430쪽에 달하는 실제적인 목회학 박사논문을 제출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ts.edu)는 'For the Church'(교회를 위해)라는 가치 아래, 성경적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규모로 미국내 5대 신학대학원에 속하며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 인가를 갖추고 있다. 한국부에는 현재 550명이 재학 중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가운데 북미 최대이며 탁월한 교수진과 최고의 질적 강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거돼 있다. 미드웨스턴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문의는 홈페이지(www.mbts.edu) 또는 최새롬 사모(ks@mbts.edu, 816-414-3754)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오른쪽)가 국제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있다.

새소망교회, 난민구호헌금 2만불 전달
국제기아대책 통해 로힝야 난민에 성탄선물

메릴랜드 버틀스빌에 있는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성탄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 교회는 매년 지구촌에 가장 굶주리고 탄식하는 난민들을 한 곡씩 선정해 집중해서 돕고 있다. 새소망교회는 자체 교회건물이 없을 때부터 남미 선교지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나서 자체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반다야체, 카트리나, 아이티, 페루, 에티오피아, 네팔 등 수많은 나라들의 난민구호를 위해 온 교회가 바자회를 통해 구호헌금을 마련해 보냈다. 특별히 이번 난민구호헌금은 미

안마의 소수종족인 로힝야 부족이 처한 소식을 듣고 이 종족을 돕기로 결정하고 추운 날씨에도 바자회를 열어 2만 달러를 마련해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에 전달했다. 로힝야부족은 7세기부터 미얀마(구 버마) 뱀갈만 해안선을 따라 살던 소수 무슬림부족으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그들의 입지는 매우 좁았으며 현대 미얀마 역사에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됐다. 최근 로힝야 부족 마을에 불어닥친 미얀마군의 숙청으로 생존을 위해 무작정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수많은 로힝야 부족의 생활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며 세계가 그들을 돕기 시작했

다. 안인권 목사는 구호금을 전달하며 “초대교회의 존재이유는 구제와 선교였습니다. 이것을 빼고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새소망교회가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복음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국제기아대책(kafhi@fh.org)은 현재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전 세계 빈곤국가에서 40년 넘게 사역해 난민구호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국제기아대책>



미주 한인 나사렛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성탄절 감사예배 및 송년회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성탄절 감사예배 및 송년회

남서부 나사렛 교단 한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감사예배 및 송년회를 갖고, 한 해 동안 맡겨진 임무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회장 전성천 목사)는 12월 11일 오후 6시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약 60여 명의 목회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절 감사예배와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 목사(뉴홀란인교회) 찬양인도와 전성천 목사(추수하는교회)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원규 목사(카리나교회, LA지방회 한인 코디네이터)의 기도로 이어졌다. 예배의 설교 말씀을 증거한 이봉하 목사(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나라 새 생명의 열매가 한 몸으로 연합해 충성스럽게 주의 사역에 헌신한 한해였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특별순서 시간에는 목회자 자녀로 구성된 2개 팀이 출연해 기쁜 성탄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살롱장로교회에서 '전' 그룹 성탄축하 행사
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살롱 전기현 박사가 주도하는 전 그룹 중심의 성탄축하 행사가 지난 8일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렸다. 전 그룹 대표이자 전 유니버시티 총장인 전기현 박사의 인사 후, 나성균 목사는 누가복음 2장 14절을 중심으로 '왜 메리 크리스마스의 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나목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부드러움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에 영광이며 기쁨이고, 땅

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수 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도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 그리고 커뮤니티와 자연과 화해해 가는 곳마다 화해를 통해 평화와 기쁨이 소개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오페라 캐롤라이나 지휘자 겸 디렉터인 제임스 미나 씨가 스페셜 리마르크를 한 후, 전 유니버시티 합창단이 수준 높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성탄곡들을 찬양했다. 지휘는 이영기 학장과 차기훈 교수가 맡았다.



살롱장로교회에서 '전' 그룹 성탄축하행사가 열렸다.

전통 한식으로 만찬을 한 후 하와이 알로하 댄스 그룹의 성탄축하 그리고 Corky and Arty의 매직 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행운권 당첨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행사는 타머스 벨크 박사의 축복

기도로 마쳤다. 한편 살롱장로교회는 금년 마지막 주일인 31일 가족찬양대회를 갖는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및 산행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신년기도회' 및 '회원 간의 친교를 위한 산행'을 개최한다. 일시는 2018년 1월 8일(월) 오전 7시 30분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50인승 코치버스로 출발하며 기도회 장소는 뉴욕은누리성결교회(담임 김주동 목사, 62 Main St, Chester). 기도회 후에 산행은 베어마운틴과 세븐레이크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준비를 위해 25일까지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메일: nykacag@gmail.com

▲문의: (718)440-2289 이준성 총무, (636)579-0067 김주동 서기

프라미스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

프라미스교회가 2018년 1월 7일(주) 오후 4시 김남수 원로목사 추대와 허연행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321-7800

플타임 EM 목회자 청빙

KAPC 교단 소속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담임 목사)에서 플타임 EM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에서 M. Div 학위를 받고 개혁 장로 교단에서 안수 받은 영어목회 경험자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신앙고백서와 비전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syhan91@hotmail.com

파트타임 전도사 청빙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에 위치한 베다니 장로교회(담임 김영진 목사)에서 교육부 담당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중언어가 가능하며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학부 때 신학 전공자로 이력서, 신앙고백서, 지역 비전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제출 마감일은 12월 31일.

▲문의: stivesosgo@gmail.com(박원울 목사)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성회”

김담미니스트리가 주관하고 모퉁이통신교회와 기독교저널이 후원하는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성회”가 31일(주) 오후 4시와 2018년 1월 1일(월) 오전 10시 하나님의나라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말씀은 이삭 목사(모퉁이통신교회 대표)가 전한다.

▲문의: (917)887-5676

퀸즈한인교회 원로 한진관 목사 별세

퀸즈한인교회 원로 한진관 목사(사진)가 지난 17일 주일 오전 4시30분 자택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한진관 목사는 1969년 퀸즈한인교회를 개척하고 36년간 시무하다 2005년 은퇴했다. 퀸즈한인교회는 21일 오후 8시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한진관 목사는 1930년 함경남도 해산에서 출생하고, 1950년 육군 대위로 제대했다. 1956년 한국신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했으며, 1966년 김태열 사모와 결혼했다. 1968년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했으며, 1969년 퀸즈한인교회를 개척했다. 1969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77년 성령세례 후 불같이 뜨거운 목회를 했다.

퀸즈연합장로교회 김형규 목사 원로목사 추대

퀸즈연합장로교회 김형규 목사(사진)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후임에는 배찬호 목사가 청빙됐다.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답사에 임한 김형규 목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좋아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살았다. 그리고 22년을 이 교회에서 살았다. 조용하게 물러나려 했는데 일이 커졌다. 이렇게 성대히 은퇴식을 열어주신에 감사드리며 한걸음 걷게 해준 두 분의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게다가 훌륭한 후임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하겠다”고 감격해 했다.

오후 5시 퀸즈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 추대예식에는 동 교회가 소속된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소속 목사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김형규 목사의 고간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축원했다.

1부 예배설교는 김정문 목사가 맡았다.

2부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은 배찬호 목사 인도로 축사 김연준 목사, 격려사 김삼천 목사, 김명하

김형규 목사는 1995년 책산회에서 동 교회를 개척하고 22년간 담임목사로 시무해왔다. (정리: 유원정 기자)

(5면에서 계속)

군대생활을 추억해보면, 병사들은 먹는 게 그저 된장국하고 무하고 밥이다. 그런데 그것 먹고 하는 일이 전봇대 들고 뛰고 벌일을 다 한다. 악으로 강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먹은 것은 없는데 목소리가 우렁차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렁차게 하다보면 무언가 일이 되더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도저히 길이 없다고, 스스로 할 기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생명을 거는 것이다. 생명을 거는 것은 목을 내놓는 것이다. 목을 내놓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다. 아우성치듯이 땀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삶의 척박한 정황들을 보면서, 한계와 연약함의 안타까움 앞에 부러져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됨을 믿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이름이 없으니가 뛰어 내리는 것이고, 아니면 나만 죽기 뭐하니가 같이 죽자하고 찌르고 자기도 죽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이다.

사명의 회복

회개와 회복의 결론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된 회개의 삶은 기도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된 은혜의 결실과 결단

“소명에의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

뉴욕목사회 제46회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목사회 제 46회기인 지난 17일 저녁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을 드리고 출범했다.

“소명에의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 진목과 연합으로 하나되는 목사회”라는 표어를 내건 목사회 회장 문석호 목사는 “오늘날 변화되어가는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채워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회직에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목사님들 간의 친목과 연합을 통해 영육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는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이임하는 김상태 목사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회원들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목사회를 영원한 진정집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뉴욕목사회 제46회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김정숙 목사, 특송 효신성가대, 설교 김승희 목사, 헌금기도 안경순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계22:12)라는 설교에서 “

하늘의 상은 내가 한 일을 통해 받는다”며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했다. 김 목사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첫째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둘째 다투면서 일하기 때문”이라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오전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동성애 문제는 영적전쟁...후회 없이 싸우겠다”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세미나, 강사 김지연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세미나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전협회 대표이사)를 강사로 지난 13일과 14일 뉴저지와 뉴욕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한국국가기독교운동(총재 조갑진 목사) 미동부(대표 정명희 목사)와 국가지도세계지도자연맹이 주관하고 뉴욕과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가 후원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뉴욕평화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박미아를 목사(뉴욕대표) 사회로 찬양 김수경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대표기도 현영갑 목사, 성경봉독 정숙자 목사, 설교 이만호 목사, 헌금기도 지인식 목사, 통성기도 인도 이종명 목사, 광고 정명희 목사, 축도 최은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뉴욕교회회장)는 “새 영과 새 마음”(겔36:24-3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3차원의 죄중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며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더러움에서 구원받고, 기근 대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위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성탄의 계절을 맞자”고 말했다.

정명희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한국국가기독교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4040 릴레이 금식기도에 미주

한인들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러진 세미나에서 강사 이지연 약사(이화여대 약대졸)는 “동성애에 대한 영상을 따지며 사제히 설명했다.

이 약사는 “CTS에서 동성애 반대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하며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가 있다면 반대할 자유도 있다”며 1인 시위한 것을 언급하고 “저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 문제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죄와의 전쟁”이라며 “음욕은 넘치고 성경적인 참 사람은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하며 동성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수치로 보여주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성대들의 가치관, 군대 내 성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연 약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동성애 반대 측 스피커로 참석했던 경험을 간증하며, “No cross, No crown. 공공장소에서 복음이 증거 돼야 한다. 골리앗과의 싸움 같다. 그러나 떨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후회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13일 열린 뉴저지 세미나는 필그림교회에서 유병우 목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설교는 윤명호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오른쪽 끝이 새회장 이지용 목사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 새 회장 이지용 목사 정기총회... 내년 총회 호스트, 부회장 한순규 목사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회장 민병욱 목사) 정기총회가 12월 14일 은혜가득한교회(김바울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2부 총회에서 서기보고와 회계보고 후에 임원선거가 진행됐으며 회장 이지용 목사, 부회장 한순규 목사가 선출됐다.

새임원은 2년의 임기로 출발하며 2019년 4월 전 미국의 모든 회원 교회가 모이는 한인총회를 뉴욕에서 개최함에 따라 동부지역회가 총회준비를 하게 된다.

C&MA 교단 내 한인총회는 전 미주 지역에 110여개 한인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동부지역회에는 20

여개의 한인교회가 속해 있다.

한편 동 교단 소속 소자선교회교회 한영호 목사 퇴임예배가 지난 10일 열렸으며 뉴저지동산교회 부교역자 진정호 목사가 후임으로 결정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1부 예배는 찬양인도 김윤근 목사(빌립보선교회)의 찬양인도 후, 기도 한 기술 목사(뉴욕할렐루야교회), 설교 민병욱 목사(뉴욕하늘샘교회), 축도 이병수 목사(복음선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민병욱 목사는 누가복음 1:14-30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8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새 회장에 김영호 장로 제 8회 정기총회 “하나님의 장로연합회 되도록...”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가 지난 18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제 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영호 장로를 선임했다.

상임고문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 장로는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선교에 더욱 집중하고 회원 배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 또 전임 손성대 장로처럼 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성원과 후원을 당부했다.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손성대 장로는 임기를 마치며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장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매일 교회를 돌며 기도회를 가졌으며,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림으로 인해 힘을 얻고 많이 성장했

다”고 인사했다.

지난 7회기는 총수입 55,391달러, 총지출 49,950달러, 잔액 5,440달러로 재정보고를 했다.

사업으로는 매월 기도회, 세미나 및 야외회 개최, 그리고 각종 교계 행사에 참가하거나 후원했다. 또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5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열었으며 패 패터널 목사(OMS 총재)를 강사로 초청했다.

회무는 회원 28명과 새회원 3명 등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손성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기도 상임고문 김영호 장로,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후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규복 장로의 인도로, 기도 박용기 장로, 성경봉독 남후남 장로, 설교와 축도 김희복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북한 살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

주님세운교회, 임현수 목사초청 일일부흥회

북한 땅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초청 일일 부흥회가 15일 오후 7시 20분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박성규 목사 인도로 시작된 부흥회에서 ‘무조건 감사’(눅17:11-19)라는 제목으로 임현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3백만 명이 굶어죽었으며 지금도 8백7십만 명이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아이들은 영양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디다. 남한의 또래 아이들보다 10-15센티미터 작은 편이다. 그래서 식량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



임현수 목사 초청 일일부흥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임현수 목사가 북한과 한국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다. 원산에 있는 타아소의 경우 수 용돼있는 아이 중 120명이 걷지 못하며, 90명가량이 배에 복수가 차 있다. 평양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지만 지방의 경우 목탄차와 석탄차 몇 대정도 다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조사하던 북한 간부들이 내 죄명을 씌우기 위해 지난 5년간 설교 영상을 전부 보게 됐다”며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내 설교를 빠짐없이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야 그들이 변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옥돼 형을 살고 있을 때 한 간부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구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이 변화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밝혔다.

임 목사는 “북한에 억류돼있던 2년6개월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었다”며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감옥은 완벽한 수도원과 같은 곳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억류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라 말하며 “이 모든 것이 간절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 말했다.

임 목사는 “그동안 북한을 다니면서 항상 주는 자의 입장에 있었지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었다. 설교로만 했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새롭게 다가왔다”며 “북한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북한은 열리게 될 것이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라 전했다.

임현수 목사는 설교를 마치면서 북한의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이날 예배는 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시133:1)’라는 주제로 2018년 1월 2일(화)부터 5일(토)까지 갖는다. 강사는 2일(화) 한기홍 목사, 3일(수) 고승희 목사, 4일(목) 신승훈 목사, 5일(금) 이재호 목사, 6일(토) 민종기 목사. 부흥회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문의: (714)446-6200

월드미션대학교 오픈하우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입학설명회를 겸한 오픈하우스를 2018년 1월 4일(목) 오후 7시 본교에서, 8일(월) 오전 10시 OC삼당대학원(7342 Orangethorpe Ave, Suit A-103, Buena Park)에서 갖는다. ▲문의: (213)388-1000, (657)529-1133

OC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이임식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임시당회장 김삼덕 목사)는 엄영민 담임 목사 이임식을 31일(주) 2부예배후에 갖는다. ▲문의: (714)891-2029



벤츄라카운티 교협주최 크리스마스 연합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10개 교회 찬양팀 참여 벤츄라카운티 교계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

벤츄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지역 한인 교회 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에서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개 교회에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분담을 가득 채웠다. 승광철 목사는 “옥스나드한인연합교회에서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산불로 인해 장소가 급히 변경됐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들 마음을 합쳐 훈훈하게 이번 행사를 잘 치르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교회)의 인도와 새생명교회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연합예배는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가 기도했으며, 남재현 목사가 성경봉독,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마1:1-6, 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찬양은 참여교회들이 각 주 제별로 나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님의교회가 “기쁨의 찬양”이란 주제 아래 ‘사랑의 왕, 목자들의 축제로 문을 열었으며 벤츄라카운티교회(김민영 목사)가 “능력의 찬양”이란 주제로 성탄 찬송 메들리를 선보였다.

그리고 씨미벨리 한인교회(반재근 목사)가 “평화의 찬양”이란 주제로 ‘가장 빛난 별, 콤파야를 불렀으며 이상영 목사(카마리오연합교회)의 봉헌, 합심기도 후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가 “은혜의 찬양”이란 주제로 ‘모두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를, 카마리오연합교회(승광철 목사)가 “영광의 찬양”이란 주제로 ‘은혜 알게 하소서, 복된 주의 날’을, 옥스나드연합교회(김민영 목사)가 “축복의 찬양”이란 주제로 ‘찬양 하리라, 오 거룩한 밤’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참석한 성도들이 다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를 부른 후 승광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헌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벤츄라 지역 교우들을 위해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LA카운티 아동보호국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위탁가정 아이들 위한 신나는 파티”

한인가정상담소, LA카운티 아동보호국과 크리스마스파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LA카운티 아동보호국과 공동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1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코비나 지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 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족과 카운티 아동보호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타클로스가 행사장을 방문, 아이들과 사전을 찍고 선물을 나눠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술사가 펼치는 마술쇼를 관람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페이스 페인팅이나 풍선아트, 아트&크래프트, 네일아트 부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 한인사회 후원자들이 마음을 모아 보내준 선물과 상품권 등을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특별히 올해는 현대자동차에서 담요 100장을 기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오늘 행사는 한인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덕분에 가능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픈뱅크는 물론 교회나 모임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직접 자원봉사자로서 선물포장과 카드작성, 행사준비를 도와주시는 등 많은 분들이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날 행사에



APU 2017년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에서 이민호 목사가 고급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존웰레스 총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은 이날 축도를 맡은 이종혁 목사가 한국어로 축도하는 모습)

아주사퍼시픽대 2017년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

박희민 목사 명예인문학박사, 이민호 목사 고급교육학박사학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웰레스 박사) 2017년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이 16일, 본교 웨스트캠пус 팰리스이벤트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위수여식은 오전 9시 30분에 학부학위수여식을, 그리고 오후 1시30분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위수여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존 웰레스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석박사학위 수여식은 명예인문학박사 1명, 박사 65명, 석사 457명, 특수교육심리학 1명 등 총 5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희민 전 영락교회 담임목사가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이민호 목사가 고급교육학박사학위를, 김태호 씨가 물리치료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송유석 전도사(새생명비전교회) 등 9명이

목회학석사학위(M.Div), 제니퍼이씨 등 5명이 간호학석사학위를, 제클린리 씨가 교육학석사학위를, 이석훈 씨가 교육리더십석사학위를 수여받는 등 총 19명의 한인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이날 존웰레스 총장은 명예인문학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박희민 목사에게 학위를 수여할 때 학위수여식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축하의 박수를 쳤으며 박희민 목사는 학위수여증서를 높이 들어 이들의 축하에 화답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됐으며 축도는 고급교육학박사학위를 받은 이민호 목사의 아버지 이종혁 목사가 한국어로 했다.

(박준호 기자)



박희민 목사의 APU인문학명예박사 학위수여 축하를 위한 오찬행사에서 APU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편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박 목사가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있는 모습)

박희민 목사 APU 명예인문학박사 받아 축하오찬 개최... “더 잘 섬기고 사역하라는 의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웰레스 박사)에서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박희민 목사는 “미국에서 우수한 크리스천 대학인 APU에서 명예인문학박사 받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며 “이번에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선교사업에 보다 더 잘 섬기고 사역하라는 뜻이라 믿는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와 후원해준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민 목사의 명예인문학 박사 학위수여를 축하하기 위한 오찬행사가 16일 오전 11시30분 APU 웨스트캠пус에 위치한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존 웰레스 총장과 데이빗 빅스비 수석부총장, 박성민 총장특별자문위원 등 학교 인사와 김창환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원장, 송정명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이성우 목사와 최분환 장로(이상 미주성서화운동본부), 풀유 목사, 최대준 목사, 김대순 목사 등과 친지들이 참석해 박 목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존 웰레스 APU총장은 “박희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에서 88년부터 10여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헌신했다. 토론토대학 녹스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에서 메릴펠로우 연구생활을 했다. 사회적으로도 한흑기독교연맹 공동회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미주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를 맡아 공헌해왔다. 그리고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미주장신대학교 학장, 풀러신학교 이사 등을 맡아 높이 사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학위수여에 대한 설명했다.

이날 오찬행사는 데이빗 빅스비 본교 수석부총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성민 총장특별자문위원이 식사기도를 했다. 점심만찬이 마친 후 존웰레스 총장이 박희민 목사에게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박희민 목사가 답사와 마침기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주최 송년콘서트를 마치고 학생과 스태프 그리고 교수들이 기념촬영했다.

재학생&동문, 클래식&현대음악 공연 베데스다대학교 2017 송년 콘서트

베데스다대학교(총장대행 조에스터 박사는) 2017 송년 콘서트를 13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본교 교수와 교회 음악과 학생들과 동문들이 클래식과 현대음악으로 나눠 진행됐다. 클라리넷 연주자인 태배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박윤재 교수가 본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류자연 자매

와 함께 감미로운 연주를 선보였으며, 현대음악인 찬양사역과 학생들이 랜디김 교수와 기타리스트 캔송교수 등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 그리고 팝, 부르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진유철 목사 인도로 주기도문을 하고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유스타미디어 주최 기적콘서트_나는 가스펠 가수다_ 공연이 LA한인침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적콘서트 시즌7 우승 투시스터즈

유스타미디어 주최, 리차드김, 송도훈 선수 후원행사로 열려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가 주최한 기적콘서트 시즌7 ‘나는 가스펠 가수다’가 16일 오후 6시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자폐를 극복중인 마라톤리 리차드김 선수와, ADHD를 극복중인 골퍼 송도훈 선수 후원행사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박상균 대표의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한인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총 7개팀으로 나눠 공연을 펼쳤으며 공연방식은 ‘나는 가수다’의 방식을 도입해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진행했다.

먼저 팝, 대중가요, 성가곡 등으로 첫 번째 무대를, 그리고 찬양곡으로 두 번째 무대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이 청중평가단이 돼 이들의 무대를 감상

하며 가장 감명 깊었던 팀을 선정했다.

이날 우승은 박해미 백예은 자매가 듀엣으로 참가한 투시스터즈에게 돌아갔다.

참가팀은 K팝스타 시즌4 출신 존 추, 크리스천 힙합래퍼인 J. Spark, 유명 아티스트 폴킴의 작곡가 겸 편곡자로 유명한 조셉윤(Joseph K. Yun)과 보컬리스트 이승희,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 수상자 김봉 밴드, 듀엣 아담과 이세, 소프라노 크리스틴정, 그룹 투시스터즈(박해미, 백예은) 등 7팀이다.

한편 이날 장애인들과 봉사자들로 구성된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와 수화전문가 김민경 씨가 찬조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더욱 빛냈다.

(박준호 기자)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장로교 양대 교단

통합-교회 세습 문제, 합동-총신대 내용

장로교 양대 교단인 통합과 합동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은 교단 소속 교회의 세습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는 18일 오후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 공정재판 촉구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교단 내 최대 교회로 꼽히는

교회의 세습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모였다. 통합목회자연대, 예장목회자5단체 공동대책위, 전국신대원 연합회,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연합기도회는 19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소송' 심리를 앞두고 열렸다. 기도회 준비위원장 이근복(크리

스찬아카데미 원장)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기 위함"이라고 기도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교 교수 124명과 신대원 원우회 등은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총회 임원회에 전달했다.

재판국 관계자는 "첫 심리인 만큼 바로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지난 10월 열린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임원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데 총회 측은 더 큰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양측이 대립보다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예장합동은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의 내용으로 시끄럽다. '총장

배임증제외 협의'와 '정관변경을 통한 대학 사유화' 논란에 이어 최근 두 명의 총장이 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를 제7대 총장으로 재선출했다. 재단이사회 측은 그동안 지난달 27일 김형국(하양교회) 목사를 제7대 총장으로 선출한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김영우 목사 총장직 재선출 소식을 들은 운영이사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총신대 교수협의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재단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재선출한 행위는 총신대 교직원과 학생, 예장합동 총회를 기만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를 찬탈하려는 죄악'이라고 지탄했다. 예장합동 산하 목회자와 성도, 총신대 교수·학생 등은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총신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금식기도회'에 동참했다.

전계현 예장합동 총회장은 "사태의 핵심은 총신대가 총회와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선을 긋고 교단의 지도를 벗어나려는 것에 있다"며 "지혜를 모아 대화 창구를 열되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 / 대 / 시

부끄러운 자의 기도



곽상희 권사 (서인)

찬 겨울 길거리
당신이 홀로 외로워할 때

잔가지 죄 꺾어지고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의 허리
휘어져 신음할 때,
그 부러진 신음소리
그 갈대가 당신임을 몰랐습니다.

가시자갈 발 신발 벗은
작은 발 당신의 발인 줄,
그 밤 추움에 떨며
우정이 그리워
내게 와 손 내밀었을 때
나는 당신을 멀리 피하여
평안한 잠을 취했습니다

나는 수치의 따가운 철모를 쓰고도 아무렇지 않는
얼굴 뒤편 부끄러운 사람
당신이 흑독한 바람 속에서
손발 떨며 먼 하늘 보다가
불 켜진 창문 안을 기웃거릴 때
당신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랑을 위해 버림받은
그 왕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야기, 사랑의 왕자시여

순수와 공홀과 우정이 낡은 것 되어
비웃음 받는 세상에서
거리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한갓 귀찮고
우스꽝스런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흑독한 세상에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의 왕이시여, 미세레레
우리들을 당신의 품안으로 거두소서.

kwaksanghee9@gmail.com

탈북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2007년 이후 한국에 온 탈북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로 조사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수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버젓이 명시돼 있지만 종교박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NKDB·소장 김웅기)가 13일 공개한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가운데 현재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교(28.0%) 불교(10.1%) 천주교(9.5%) 순이었다.

종교활동 시작 시기는 국경원에 서부터(33.9%)가 최다였고, 중국(30.6%) 하나원(29.0%)에서 종교를 접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99.6%가 '자유로이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수정된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종교 박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종교활동 처벌 수준과 관련, 가장 높은 처벌로 '정치범수용소행'을 꼽은 응답자가 50.9%에 달했다.

안원민 NKDB 연구원은 "사회주의 헌법 5장 국민의 기본 권리 및 의무 68조에 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2013년, 14년 탈북한 이들 가운데 종교 박해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건 2012년 헌법 개정 이후에도 종교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즉각 폐기해야"

동성에 반대 교수연합, "동성에 옹호 위헌적 정책 중단"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여가부가 추진하려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 건강증진 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성에 옹호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범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을 성평등에 기반해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성평등 용어를 폐기하고 기존의 양성평등 용어를 꼭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내년부터 여가부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존의 양성이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 교수는 "2차 기본계획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성적지향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학교 성평등 교육에 동성에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에 사회적 성평등이 들어가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교육에 동성에 교육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음 교수는 성주류화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제공할 성평등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 정부형태에서 성주류화 총괄기구로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만약 여가부 계획대로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면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같은 시도는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추론에서 본다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은 그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 교수는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차별금

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같은 시도는 결국 성적지향, 즉 동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 남성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차원과 다른 젠더에 따른 건강현황 파악을 세부 정책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양성이나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음 교수는 "여가부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라 혼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만약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것으로 여간다면 여가부가 무지한 것이고, 다른 것을 알고 사용했다면 정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동성에 옹호 조장론자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평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동성애자의 평등권으로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동성에 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도 "여가부의 본연의 업무는 부처 이름대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성평등 용어를 써가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 해체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여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의방문, 청원서 고발장 등을 제출해 잘못된 성평등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젠더 이론의 선구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에 비춰볼 때 여가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일괄 변경해 사용하려는 것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해체하고 젠더가 주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은 제2차 기본계획의 6번째 대과제에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성주류화 정책은 서구에선 이미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샤워실, 락커룸을 제재없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여성과 가족을 지켜야하는 여성가족부가 해야하는 정책에 해당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교총, 이영훈 목사의 공동대표회장 사임서 반력

주요 교단장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이 목사의 지지 필수"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대표회장 4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과 전계현 예장합동 총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등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행사관계로 공동대표회장 사임 의사를 밝힌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의 사임서를 반력했다.

공동대표회장단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이 목사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대외협력관계를 맡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의 동성에 성평등 정책 절대 안돼"

한기총, 교계 연합기관 최초 여가부정책 비판 경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교계 연합기관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한기총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적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꿔 정책에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국민

지난 5일 제1회 총회에서 비상임 총무로 선임된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르면 공동대표회장 선임에 관한 명수(名數) 제한이 없으며, 교단 내 개교회 소속수에 따른 군(群) 분류는 정관이 아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대표회장의 선임과 제한은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교총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보고했으며, 한국교회사회특별대책회의회 설립,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축 반대 상황을 청취했다.

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동성에 논쟁에 앞장서지 말라"면서 "만약 국민들의 열망을 알면서도 잘못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4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보완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등 교회연합기관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 주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연, 'एं터리' 매체 신뢰도 조사 논란

한국기독교연론포럼(이하 한기연)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사회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가 표본 추출부터 질문 구성, 여론조사업체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신뢰도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조사는 같은 방법으로 3년간 진행됐다.

"목회자 대표할 수 없는 표본으로 설문"

한기연이 여론조사업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는 기독교인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표본오차가 신뢰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앤컴리서치는 "이번 조사의 목회자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9.8%"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사방법론에서는 오차 범위가 ±5%를 넘으면 표본오차(母)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설문조사 발표자료에 "무작위 추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돼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목회자를 20만명으로 가

졌을 때, 전 국민(5000만명 추산)을 대상으로 목사 100명을 무작위 추출하는 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전 국민에게 무작위로 250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 목회자 1명이 전화를 받을 확률이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2만5000번 전화를 걸어야 100명의 목회자를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셈이다. 제대로 조사했다면 설문기간 15일 동안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앤컴리서치의 관계자는 13일 "목회자 표본은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 '편의 표집'했다"고 실토했다. 편의표집은 편의상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편의표집을 했기 때문에 표본오차는 있을 수 없다"며 "자료의

'±9.8%'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수치가 자료에 들어간 것도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용역을 의뢰한 한기연이 제시한 설문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인정했다.

"신뢰 떨어뜨린 매체신뢰도 조사"

기독교 매체 신뢰도를 묻는 질문은 더욱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른 매체들의 경우 회사 명칭만 기입한 것과는 달리 국민일보(국민일보(미선지))라고 했다. 설문에서는 CBS, 기독교방송, CTS, 뉴스앤조이, CGN, C채널, 국민일보(미선지)의 신뢰도를 물었다. 이 같은 질문 방식은 '국민일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신뢰도 관련 질문에 앞서 '평소 어떤 매체를 즐겨 보는지'에 대한 경향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경향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언론사 전체와 매체 일부를 비교한 것이다. 결국 신뢰도 조사를 한다면서 문항 자체에 모순을 드러내며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의 대표가 설문을 의뢰한 단체의 이사로 있는 점도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지앤컴리서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특정매체에 유리한 설문결과가 나왔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언론학 박사인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차츰 인기투표나 이미지 투표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매체에 대한 경향성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연은 내년도 설문조사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만식 한기연 실장은 "3년 동안 진행해 온 설문조사인 만큼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지적한 부분들은 내년도 설문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럽한기총 창립 대표회장 나기호 목사

11-13일 통일구국기도회 함께 열려

유럽에서도 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시작됐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독일 오버하우젤에 위치한 ICF에서 유럽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유기총) 창립총회 겸 통일구국기도회가 열려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임했다.

△교문 임종택 목사(프랑스 파리안디옥교회), 김현중 목사(폴란드 바르샤바한인교회), 장세균 목사(독일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 박익석 목사(독일 마인쯔중양교회), 한평우 목사(이태리 로마한인교회) △대표회장 나기호 목사(독일 부퍼탈 한인선교교회) △삼십회장 이상구 목사(프랑스 파리침례교회), 한은선 목사(독일 베를린 한인선교교회), 장황영 목사(오스트리아 비엔나한인교회), 김승천 목사(프랑스퐁뇌프 장로교회), 오대환 목사(덴마크 코펜하겐한인교회) △공동회장 문창석 목사(헝가리 부다페스트한인교회), 김홍석 선교사(동유럽선교사회회장), 안동기 선교사(영국), 이형길 목사(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온교회), 이희영 목사(영국 예수비전교회), 신국일 목사(프랑크푸르트 교역자협의회회장), 이창배 목사(유럽 크리스찬신문 발행인) △사무총장 김호동 선교사(불가리아 개혁신학교 교장) △서기 허승우 목사(독일 에어랑엔 한인교회) △부서기 김한섭 선교사(체코) △회계 최규환 목사(벨기에선교교회) △부회계 이성현 목사(루마니아 부카레스트한인교회).



유럽한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진들과 세계 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유기총과 세기총이 MOU를 맺었다. 유기총 나기호 목사(왼쪽)와 황의준 목사(오른쪽).

황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에 따라 허용적 섭리와 방해적 섭리, 직접적 섭리로 세밀하게 구분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모습은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목회자들의 영적인 모습과 동일하다”며 “날마다 목회자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연이어서 한국 사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며 참석자들에게 영혼의 큰 떨림을 주었다.

한편 유기총은 창립총회 후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와 MOU 협약을 체결했다.

(기사제공: 유기총)

후고 칼럼

강성호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뒤에 것을 잊고 7대 목표를 앞세워 달려 갑시다”

국내외적으로 다시 다녔던 한 해였고 사회 전반의 걸쳐 소용돌이 치는 변화와 변혁속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희비가 교차된 한 해였다. 지나고 나면 아쉬운 애환과 미련 속에 상념에 사로잡힌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면 입에서 나온 말이, 시위를 떠난 화살, 었지러진 물, 흘러가 버린 세월, 거둘 수 없는 연류이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첫째, “정죄 의식이다.” 마음에 쌓인 슬픔, 원한, 미움, 부끄러움의 정죄 의식은 좌절과 질병을 유발 시키고 의욕과 희망을 잃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꺼리를 남기지 말라. 둘째, 지난 날의 실패를 되짚으며 “열등의식 좌절감을 갖지 말라.” 대인 관계나 사업 실패 등 그 일에만 실패했지, 인생 전부를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고 성경 인물 중에 실패하지 않고 재기한 사람은 없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자.” 그것은 분열과 파괴, 불행을 불러들인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고치고, 다듬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언제나 대인 관계에서 넓은 야량과 포용력과 겸손하며 하나님 주신 양심을 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힘 쓰라. 넷째, “지난날의 영광 속에 살지 말라.”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면 좌절과 갈등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인생은 짧다 100년을 산다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30년도 안된다는 말이 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말라” 한 해 동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체념이나 절망하지 말라. 초로 같은 인생길에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다. 뛰어보아 버리고 날아보아 때부터 내 주제라 하며,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돌아보며 자기 삶보다 줄곧 남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떠도는 구름처럼 정함이 없는

사람이며 좌절과 절망을 자주하는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으려 한다. 영국 처칠 수상은 대학 졸업식사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짧은 세 마디가 명언이 되었다.

전진하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뒤돌아 보아서는 안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려야만 전진이 가능하다. 자신의 상처, 남의 실수도 뒤에 것을 잊고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2018년 새해에는 7대 이정표를 앞세워 달려갑시다.

18:21,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나니 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했다. 부정적 말을 하면 부정적 요소들이 자라고 긍정적 말을 하면 긍정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불이며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다. 말은 부대망이다. 불평하면 불평 조건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생긴다.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롬 10:10). 출애굽 민족을 보라.

1. 건설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부정적 생각, 할 수 없다, 안된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롬8:6).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4:13).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요셉처럼 감방 속에서도 희망찬 생각이었다.

2. 철저한 “믿음”을 갖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히11:6).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는 마음에 소원을 품은 후에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막11:24, 막9:23). “아브라함처럼, 사자 굴에서 다니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소리 들리지 않아도....”

3. 언제나 “꿈”을 가지자. 잠29:8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의 꿈이 없었다.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다윗 모두 꿈을 가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을 가졌기에 다윗은 임금이 되었다.

4. 소망 찬 “말”을 사용하다. 잠

5. “인내”하며 살아가자.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도 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다. 험난한 인생길일지언정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롬5:4). 순간을 주고 영원을 바꾸지 말라. 아내와 세 친구가 배신했어도 욥은 인내로써 감정의 추락을 받았다. 십자가는 인내의 극치다.

6. “감사”를 생활화 하자.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빈손들고 이민온 그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자녀된 것,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감사 조건을 헤아려 보라. 바울과 실라는 옥방서도 감사했다.

7. “사랑하며” 살라.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국경도 인종도 초월하며 섬김의 삶으로 인류에게 본을 보이신 주예수를 닮아가며 천국의 소망 속에 한 번뿐인 인생여정 열심히 살며 천국의 소망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7대 이정표로 살아가자(빌3:13-14).
gospel_5th@hotmail.com

선교 논단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방장)

다음세대 리더 발굴 및 훈련과 파송의 중요성 (하) -중남미선교를 이어갈 MK 및 PK 선교동력화

4. GMS 중남미 선교전략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선교정책

GMS 중남미 선교전략연구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선교정책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더불어 선교하는 일과 MK(선교사 자녀) PK(목회자 자녀) 및 선교 헌신한 1.5세 및 2세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울 뿐 아니라 과감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좋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훈련하므로 중남미 전 지역에 골고루 선교사로 배치하면 중박적 투자를 막게 되고 참신한 선교사를 각 지역에 파송하면 효과적인 선교수행을 감당할 뿐 아니라 저들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나머지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MK, PK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2세들에게 전략적 투자를 하면 저들의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5. 부르심을 받은 MK 및 PK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상황

그 첫째가 경제적 빈곤이다.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학문적 준비와 선교훈련에 필요한 자

금은 재정적인 후원 및 멤버케어이다. 그런데 선교사명의 주체가 될 교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국의 교회들이 중남미지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낸 수준에서 협력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공부하려 하기에는 여건이 안되므로 부양의 책임과 가

족을 떠나 살기로 오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셋째는 각국의 노력과 수고 속에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사명의 주체인 보내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초임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

은 재정적인 후원 및 멤버케어이다. 그런데 선교사명의 주체가 될 교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국의 교회들이 중남미지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낸 수준에서 협력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공부하려 하기에는 여건이 안되므로 부양의 책임과 가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간 1.5세 및 2세들이 공통적인 고백은 방대를 받고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선교대열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혜택도 못받기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국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찾으나 역시 실질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못받고 부교역자로 초빙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빈약한 교회들이라 마음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도울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추진해야 할 선교적 과제라 생각한다.

4. 제언

1)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각 나라에 파송된 1세대 선교사들은 시니어선교사들로 후임을 찾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타의에 의해 이민자가 된 1.5세(1.5세)와 2

2) 1.5세 2세와 1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와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물론 같은 디아스포라인 미국의 한인 교회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단의 정책과 GMS 지침과 역사적인 전통만을 고집하면 2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같은 복음과의 관계이다. 성경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선교지 노후화가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3) 1.5세 2세 3세들은 말이 통하고 일도 잘하고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헌신도가 약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약하고 복음과의 관계가 희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1세에 비해 존경과 신

이며, 모든 면을 갖춘 선교적 자원인 2세, 3세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이제 GMS선교 본부는 지역에 크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과감한 선교투자 전략을 세워 집행하여야 된다고 본다. 특히 선교에 헌신한 학자들을 발굴 훈련 파송 하되 2세 3세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 계속하여 연구 개발하여야 된다고 본다.

나가는 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바뀌어 가면서 국가와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이전에 잘 나가던 직업들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물질이 쓰나미 현상을 이루며 물질만능 밀려오는 현 시점에서 문화와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실 속에서 신을 하며 고통 속에 도움을 간구하는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구간을 책임지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일할 제자를 한국교회에서 가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MK(선교사 자녀)와 PK(디아스포라 목회자 자녀) 가운데서 발굴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갈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kangseungcheol@gmail.com (끝)

중남미 MK 및 PK 200명...이들 위한 선교 정책과 전략 필요 한국에 선교훈련 받으러간 1.5세 및 2세들 선교대열에서 제외

세대 가운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소리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만해도 80여 명이 된다 비공식통계이지만 중남미 전체에 200명이 넘는 MK 및 PK 헌신자들이 있다. 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력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이 약하다. 선교지에 꼭 필요한 재정적인 힘이 약하다.

4) 그렇지만 브라질 및 중남미지역 선교의 내일은 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선교적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키우는 교육선교사가 지금 되어주십시오



글로벌선진학교 01.

불과 60여 년 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복음화를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장학생으로 선진국학교로 진학시켰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2.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는 지구촌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현지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초청하여 최고의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3.

당장의 배고픔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탁월한 지도자로 키우는 일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4.

어렵고 힘든 나라 복음이 척박한 나라에서 찾아온 이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는 일에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장학 헌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는 어렵고 힘든 나라의 청소년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항공료와 생활비, 모든 수업료를 감면 지원하여 장차 그 나라의 탁월한 인재가 되어 국가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Faith Aim Dream)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참여안내 (Check or Wire Transfer)

- GVCS Foundation Inc. (비영리법인)
- Bank of America / Routing# : 026009593 / Account# : 435034388680
- 3583 Scotland Rd. Scotland, PA 17254 (체크 발송 시 우편 주소)

문의전화 714-742-2674 (미주본부) www.gemgem.org

입학상담 717-496-9487 (GVCS PA) kyungsoo@gemgem.org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7)

8.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8)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교회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때로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들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한 현실도 안타깝지만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교사'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해에 맞춘 교육방법 사용 교사입장의 편리한 획일적 일방적 방법 아닌 세상 교육방법들 참고해야

성경적인 교육방법의 정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신학적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든 교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두 번째 측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플립드러닝, 포트폴리오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습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학습적 다양성을 진지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민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그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교회들의 보수성향 때문일 공산이 큼니다.

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교회에서 사용되는 교육방법들 중 창조성과 연관된 부분은 사실 어린이 부서들에서 행하는 색칠하기, 그리기,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들이 전부인 듯 합니다. 아마도 진정으로 창조적이라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다소 획일적인 활동인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다양하게 보다 많은 비중으로 우리 자녀들의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삼하 22:27)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신 하나님은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특한 자"(의캐쉬)라는 말은 "꿇다, 뒤틀리다"라는 뜻입니다. "빼박한 사람",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왜곡되고 빼돌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거칠게 대하십니다. "주의 거스리심"(파탈)은 "억겨워하다, 붙들고 싸우다, 거칠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시에 심사가 뒤틀리고 빼박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억겨워 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따지시면서 거칠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빼박한 사람에게는 거칠게 대하십니다.

화 주께서 근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오!(삼하 22:28-29)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본문 근고한 백성이라는 뜻은 "겸손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겸손함으로 써 그리스도를 닮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아내셔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며 밤중에 길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시119:105).

나눔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아내셔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며 밤중에 길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시119:105).

수 여호와와 외애 누가 하나님이며!(삼하 22:29-30)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불빛 때문에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의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볼 수도, 활동할 수도, 일할 수도, 소신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등불은 우리 모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두움을 몰아내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등불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적을 물리치

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군을 향해 전진해서 적의 최후 방어선을 뛰어넘어 최후의 통쾌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군을 뛰어넘어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시편 22:31)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돼주십니다. "피하다"(하사)는 "도피하다"는 뜻도 있지만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돼주시고 직접 피난처가 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할 때는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셔서 확실하게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삼하 22:32)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의 길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입니다. 이미 3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바위"는 견고함과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견고하고 영원토록 불변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바위가 돼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삼하 22:33)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돼주십니다. "견고한 요새"는 그 누구도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거처를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평생의 진실한 신앙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아무런 위험 없이 늘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돼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견

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견고한 요새가 돼주신 것입니다. "온전하다"(타밈)는 "경건한, 거룩한,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수 많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경건하고 순결하게 인도하십니다.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ilee, Wungo, Bexco, Bena, Boston, Salt, and others.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기독의료상조회 —

www.cmmlogos.org

기독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로 승인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산하**에서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가 되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4만여 회원들이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65세 이상 Medicare A & B 소지자를 위한 Gold Medi-I, 65세 이상 기존 회원을 위한 Gold Medi-II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음주, 흡연, 마약, 비정상 성생활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기존회원이라도 상기조건외 실적시에는 의료비 지원이 안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의사나 병원을 지정, 제한하지 않습니다.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및 선교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연중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어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2002년 이래 회비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 가입 이전부터 있는 증상이나 치료중에 있는 질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90일 이후 발생된 질병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가입 후 300일 이후의 출산비가 지원됩니다.

Established 1996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대표전화 (773) 777-8889

